월간 북한 동향

Monthly Report on North Korea

2026년 9월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과 언어표현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가. 언어표현 및 어문 규정 적용

o 북한 동향 주요 내용: 북한 원문 그대로 적용

※ 예외 경우

① 북한인물 직책 표기 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직책만 표기

② 국내 인사 실명 비난 시, 이름의 성(姓)만 공개 ex) 홍길동 → '홍OO'

③ 특정 행사 관련 내용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주석단, 동행, 맞이 등) 별도 정리

o 남북한 표현 차이 및 띄어쓰기 관련

① 생소한 북한 단어는 '괄호'로 설명
ex) 짜고들어(계획하여), 전구(본보기가 될 행동이나 사실, 앞장서는 사람)

② 북한식 표현 중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각주' 처리

③ 북한 고유명사를 제외한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④ 주간 보도일지·주요 인물 동정은 국립국어원 기준 적용

나. 주요 인물 동정

o 당 부장급 이상, 내각 상급 이상 등 그 정도 수준의 주요 인물로 한정

2. 본 자료의 내용들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원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각 자료들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o 주간 보도일지: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일'을 기준으로 작성

※ 주간 북한동향에서 인용하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약어로 표기

- 신문, TV, 라디오 : 노동신문 → '노동', 조선중앙통신 → '중통', 조선중앙TV → '조중TV', 중앙방송 → '중방'

o 동일한 내용을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 보도순서에 따라 출처 표기

3. 본 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북한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현 및 시기에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북한 동향

제2차 산림복구사업 1단계 상반기 사업정형 ····· 5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 6
경제 부문별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 7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최 동향 ····· 8
구축함《강건》호 취역식 개최 ····· 10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관련 국방상 담화 · 12
두만강 북-러 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 ····· 13
준법의식 함양 관련 연재수기 보도 ····· 15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동향 ····· 16
북한 정권 수립(9.9.) 78주년 관련 동향 ····· 17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최 추진 ····· 19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 수립(9.9.) 관련 시진핑 주석에 답전 ····· 20
가을철위생월간사업 참여 독려 ····· 21
인민군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 협동화력습격훈련 진행 ····· 22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 수립 축전 관련 푸틴 대통령에 답전 ····· 23
박태성 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 24
한미 WMD대응위원회 관련 국방성 대변인 입장발표 26
국방성대표단, 중국 샹산포럼 참가 ····· 27
청진농업대학 준공식 진행 ····· 28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동향 ····· 29
김여정 부장,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언급 관련 담화 30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관철 투쟁성과 선전 ····· 31
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 32
청년들의 주요 분야 성과 선전 ····· 33
가을철 산불방지사업 강조 ····· 34
김여정 부장, 미국《퍼시픽 뱅가드》연합훈련 비난 담화 ····· 35
《건설부문일군집중강습 - 2026》 진행 ····· 36

《지적소유권부문전람회-2026》 진행 ····· 3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39
김여정 부장,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결의 채택 관련 담화 ····· 40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진행 ····· 41
MSMT 3차 보고서 발간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43
청년, 여성의 탄원진출 동향 ····· 44
김정은 위원장, 신형 중요전투무기체계 시험 참관 · 46
박태성 내각총리, 농업·건설 부문 현지요해 ····· 47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6 개막 ····· 48
국방과학연구부문, 갱신형 240mm 방사포 시험사격 진행 ····· 49
UN총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최선희 외무상 담화 50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 51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년 관련 전국부문별 과학토론회와 전국대학부문 교수경험토론회 진행 ····· 52
평양종합병원, 시·군병원 기술전습 진행 ····· 54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동향 ····· 55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년 관련 전국대학생 발명 및 착상전시회 진행 ····· 56
강철수 대적연구원 실장,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비난 ·· 57
국방성 대표단, 베트남 방문 ····· 58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첫 번째 대남 담화 59
김선경 외무성 부상, 제81차 UN총회 연설 ····· 60
제2차 북러 학장연단 진행 ····· 62

주요 인물 동정 ····· 63

월간 보도일지 ····· 77

이달의 약사 ····· 83

제2차 산림복구사업 1단계 상반기 사업 정형

1 개 요

o 북한은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1단계 첫해인 올해 상반기 사업 정형을 통해 성과 및 편향 점검(9.1. 노동)

- 상반년 성과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단위에서의 계획 집행의 무책임성·결함을 지적하며 일꾼들의 목표지향성과 책임성 제고를 독려

  * 전국 각 지역에서 나무종자파종·봄철식수사업·산불막이선·사방야계공사 등 상반기 지표별계획 수행 △강원도, 도로주변 잡관목지에 좋은 수종 나무심기 △평남, 종이원료림 조성 통한 은산종이공장 생산정상화 토대 구축 △증산군, 기름나무림 조성 및 병충해막이사업 등

o 2차 산림복구사업 첫해를 맞아 향후 올해 목표 관철 지속 독려 전망

※ 제2차 산림복구사업의 단계별 목표와 '26년 투쟁과업(4.1. 노동)

- △(1단계, '26-'30년) 원료림 조성 및 쓸모없는 산림 개조, 산불 및 병해충 등 산림 피해 최소화 △(2단계, '31-'35년) 채벌지에 나무심기 및 산림 개조 지속, 산림축적과 자원생산량을 늘리고 산림의 생태환경보호능력을 개선 △('26년) 좋은 수종의 나무모 생산보장 및 경제림 조성, 산불·병충해 방지 및 심은 나무 담당제 실시 등 산림보호관리

  * '15-'24년 산림복구전투 마무리('25년은 완충기의 해), 올해 식수절 계기 제2차 사업 돌입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 노동)

o "제2차 산림복구 1단계 과업집행을 위한 각지에서의 올해 상반년 사업정형"

- "올해 제2차 산림복구사업에 진입, 1단계 과업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 "나무종자파종과 봄철식수사업, 산불막이선 및 사방야계공사를 비롯한 상반년의 지표별 계획을 원만히 수행, 성과를 부단히 확대"
- "산림복구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오늘·래일을 다같이 책임질수 있게, 과학성과 전망성이 담보되도록 목적지향성있게 내밀어야 대자연개조투쟁에서 성과를 이룩", "당이 준 과업을 드티는 일이 없이 완벽하게 집행하려는 일군들의 진지한 사업태도와 주인다운 일본새"
- "일부 지역·단위들에서 일군들부터가 눈앞의 리익에만 집착하면서 응당해야 하고 할수 있는 일도 외면", "매우 무책임하게 하여 산림보호사업에서 심각한 결함까지 발로"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8.27.-9.1.)의 폐막식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9.2. 노동·중통)

- 청년 동맹일군, 근로청년들이 참가(1,800여 건 자료 출품)한 가운데 △폐막사*(백은철 애국 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단체별 순위 발표 및 청년 과학기술상·표창장 등 수여 △결의토론 진행

* 폐막사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새 기술의 개척자로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의 비상한 탐구정신"을 치하, "과학 연구활동,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전개할 것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 노동·중통)

o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각지 청년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진행"

- "폐막모임이 1일 과학기술전당", "청년동맹일군들, 근로청년들이 참가"
- "결의토론 토론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뚜렷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해나갈 결의들을 피력"

o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가 폐막사"

- "이번 전시회는 새 세대들의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새 기술의 개척자로 준비해가는 청년들의 비상한 탐구정신을 잘 보여주어"
- "모든 참가자들이 전시회 기간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연구활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맹렬히 벌려 단위발전을 힘차게 떠메고나갈데 대하여 강조"

경제 부문별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1 개 요

o 북한은 각 부문별 8월 인민경제계획 성과적 완수 선전(9.3. 노동·중통)

- 7월 보도에 이어 "상원·천성" 관련 증산투쟁 및 8월 성과* 강조

* 금속 → 화학 → 전력 → 석탄 → 기계 → 채취 → 임업 → 운수 → 건재 → 경공업 → 수산 순

o "화학공업이 나라의 핵심공업"이라고 언급하며 화학비료 생산 8월계획 완수 보도

- 또한 △채취부문 검덕광업연합기업소(연·아연 등) 8월 생산 105% 수행 △임업부문 통나무 129% 생산 등 부문별 구체적 초과 실적 선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3. 노동·중통)

o "증산운동의 선봉에서 새로운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상원과 천성의 로동계급 … 8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

- (금속) "금속공업부문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8월 선철,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완수",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채굴설비를 집중배치 … 선진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철정광생산을 장성"
- (화학)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부문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과학기술력제고를 단위발전의 중심고리로 … 기술혁신안들을 탐구적용하여 8월 계획을 완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생산공정전반의 안정성과 원활성을 보장"
- (전력) "전력공업부문 …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현존발전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고 기술적 특성을 향상 … 8월 계획을 완수"
- (석탄)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수천 t의 석탄을 증산",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수행"
- (기계) "기계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증산열기를 고조",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각종 압축기와 유압식착암기 등 대상설비들을 질적으로 생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생산에서 뚜렷한 실적"
- (채취) "채취공업부문에서 증산투쟁, 절약운동이 힘있게 전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8월 광물생산계획 105%로 넘쳐 수행"
- (임업·운수·건재·경공업·수산) "림업성적인 통나무생산계획이 129%로 결속", "평양철도국,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수행",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기술혁신사업을 심화 … 운반능력을 개선", "경공업부문, 여러 종류의 천생산량을 늘여 … 제품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 "8월 물고기잡이 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2.-3. 평양체육관에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9.3.-4. 노동·중통)

* 참석 : 김정은 위원장, 박태성·주창일·전승국·김승두·김수길 등 당·정 간부, 모범 교육자, 중앙·지방 교육부문 일군,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등

- (1일차) 김정은 위원장 연설 및 개회선언 → 박태성 내각총리 보고 → 토론
- (2일차) 토론 및 서면토론 → 맹세문 채택 → 폐막

o 폐막 이후 △참가자 대상 강습(9.3.)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사진 촬영(9.4.) △당 중앙간부학교, 김일성대·김책공대 등 평양시 안의 여러 교육단위 참관(9.6. 보도)

o 김정은 집권이후 세 번째 전국교원대회로 '19년 이후 7년 만에 개최

-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대회에 직접 참석 및 연설(9.2.), 교육정책의 중요성 부각

* 제13차('14.9.5.)·제14차('19.9.3.) 김정은 노작 전달, 제14차 대회 참가자와 기념촬영(9.6.)

- 교원들의 헌신·공로 치하, '새시대 교육혁명 확대심화' 위한 역할·책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3-.5. 노동)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9.2. 평양에서 개막"(9.3. 노동)

- "이번 대회는 제2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철저한 실행을 비롯 당 제9차대회 교육부문 목표들을 관철하는데 필수적·책임적인 공정"
- "대회에서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지난 7년간 당의 교육정책 집행 정형 분석총화, 새로운 질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 토의"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서 한 김정은 동지의 연설"(9.3. 노동)

- "존경하는 선생님들!", "교육사업, 국가적 제일중대사", "교육자들은 그 누구보다 높이 떠받들려야", "뜨거운 경의와 감사 인사"
- "이번 대회와 같이 값진 열매와 성과들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대회는 없었음.", "교육부문 광범위한 영역에서 현격한 변화를 이룩", "질적 개변, 불과 몇해 사이에 일어났다고 볼 때 하나의 혁명"

- “올해부터 제2차 강령 집행 이행, 고등교육도 이전과는 다른 진화 단계”, “지금까지 세계 전렬에 올라서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부터는 결실”, “새 시대 교육혁명 반드시 성공”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9.3. 페막”(9.4. 노동)

- “첫날에 이어 토론”, “지난시기 교육사업정형 분석총화, 새 전망계획기간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나서는 실천방도들에 대한 토의 심화”
- “교육구조 개편과 인재 육성에서 이룩된 성과,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 다지는데서 창조된 우수한 경험 언급”, “정보화와 지능화된 교육시설 적극 활용”,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 보다 높은수준에서 실현”, “지역 전반적 교육환경 일신, 교육자 생활조건 개선에 뚜렷한 진전” 등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9.3. 진행”(9.4. 노동)

-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 수준 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는 문제”, “교원양성”, “교육토대 현대적 완비”, “교원 우대, 교육부문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기풍 발휘 문제”

o “김정은 위원장, 9.4.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9.5. 노동)

-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는 것이 당 구상, 결심”, “새시대 교육혁명의 확대심화를 선언, 이번 대회의 의의”

구축함《강건》호 취역식 개최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9.6. 2번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원산항) 참석 및 연설(9.7. 노동·중통)

* 진행 : 영접의식 → 예술공연 → 경과보고(조춘룡) → 함 인도문건 인계(선박공업상) → 김 위원장 연설 → 당 중앙군사위 명령서 전달(박정천→해군사령관) → 결의발언 → 해병 승선 및 해군기 게양 → 김 위원장 승선 → 기념 촬영, 하선 → 출항 의식

** 참가 : 김정은 위원장 딸, 정치국 상무위원 등 당·정 간부, 국방성·대연합부대 지휘관, 해군 장병, 해군원로, 선박공업부문 노동계급 및 과학자·일군, 원산시민, 청년학생

- 강건호는 '25년 5월 진수과정에서 선체 전도 → '25년 6월 재진수식 → 항해('26년 6월)·무장(7월) 시험을 거쳐 취역식 진행, 재진수식 후 15개월만
- 최현호 취역('26년 6월 남포항)에 이어 동·서해 각각 구축함 1척 체제 구축

o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역내 위협'을 부각하며 '해상 주권'과 "해군 핵무장화" 강조

- (역내 위협) "항시적·직접적 위협에서 첫 손에 꼽히는 조선동해 수역"
- (해군 핵무장화) "해군 핵무장화가 실현", "핵억제력 다각화·실용화"
- (억제력) "힘의 균형 외에 평화수호의 담보란 없음.", "압도적인 힘으로 철저 대응"

o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핵무장화 및 해군 작전능력 갱신'의 연장선으로 정권 수립일(9.9.)을 앞두고 국방성과 부각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7. 노동·중통)

o "구축함 《강건》 호 취역기념식이 9월 6일 원산항에서 진행"

- "불과 석달 전 서해에서 구축함 《최현》 호 취역, 오늘은 동해에서도 거행", "우리 해군이 변해가는 속도를 실측할 수 있는 뚜렷한 현실"
- "여든한 해 전 9월에 수령을 모신 항일대오가 《개선》 호를 타고 해방의 닻을 내렸던 항구에서 구축함이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된 역사적 감격"

o "우리 국가의 안전은 항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것은 조선동해와 인근수역"

- "전투함선들이 상시 출몰, 핵자산들의 이동과 배비, 합동전쟁시연을 제한

없이 자행, 합법적인 자위권행사까지 추적, 억제하는 수역”

- “《강건》호가 동해 정식 취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에 해군기지들이 건설되고 있다는 정보는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

o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해상과 수중에서도 바로 행사할 때”,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것”

-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 외에 평화수호의 그 어떤 다른 담보란 절대 없음.”,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함.”

- “적들의 침략함대를 엄격히 구속하게 될 것, 전략적으로 퇴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

o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되여 억제력 사용에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

- “새 세대 구축함은 국가핵대응체계에 망라된 역량”

o “우리는 해군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음.”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관련 국방상 담화

1 개 요

o 북한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9.7.-11.) 첫 날 국방상 명의 비난 담화 발표(9.7. 중통)

*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는 '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다영역(해상·공중·사이버) 훈련 합의에 따라 '24년부터 매년 실시 중

- 최근 당 중앙군사위 제9기 2차 회의(8.29.)에서 임명된 김성기 국방상의 첫 담화

o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대안보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 엄포

-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 핵요소 동반 공격적 실체로 변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 연이어 감행" 등 "조선반도와 지역 불안정" 야기 주장
- 한반도 외 '미일호 협력', '일본 중거리미사일 배치' 등 아태지역 안보사안도 거론
-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 취하게 될 것" 주장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7. 중통)

o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이른바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 감행"

- "미군부는 9월 8~24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역대 최대 규모의 《오리엔트 쉴드》 합동군사연습", "전략중거리미사일체계 《타이폰》을 일본 배치 획책"
- "미국은 《제1열도선》 내에서 주변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한다는 목적 밑에 조작된 특수부대인 다영역 신속기동부대를 한국에 끌어들이려 함."

o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핵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로 변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연이어 감행되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

o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

-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에 경종을 울리며 그것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 개최

1 개 요

o 북한과 러시아는 9.7. 두만강 자동차 다리 준공식을 개최(9.8. 노동·중통)

- '25.4.30. 착공 이후 495일 만에 준공, 북(박태성)·러(미슈스틴) 총리 화상참석

* 장소 : 북한 나선-러시아 하산, 두만강 자동차 다리 일대(동시 진행)

** 식순 : 국가 연주 → 축사(미슈스틴·박태성) → 테이프 커팅 → 시범통행 → 폐회사 → 다리 시찰

*** 현장참석 : △(북한) 김덕훈(내각 부총리), 윤정호(대외경제상), 양영진(국토환경상), 신창일(나선시 인민위원장), 김정규(외무성 부상), 신홍철(주러 북한 대사) 등 △(러시아) 안드레이 니키틴(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천연자원생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극동·북극 개발부 장관), 올레그 코제먀코(연해주지사) 등

o 다리 이름을 '야코프 노비첸코 명칭 두만강 자동차 다리'로 명명

* 야코프 노비첸코는 '46년 김일성의 3.1절 기념 평양역 광장 연설 당시 투척된 수류탄을 몸으로 막고 중상을 입은 소련군 장교로, 북러 친선관계의 상징적 인물

- 노비첸코의 딸·손자 준공식 참석, 노비첸코의 자가용이 선두에서 시범 통행

- 다리 개통과 함께 하산 자동차 검문소 통관(화물) 시작, 여객은 추후 운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8. 노동·중통)

o "두 나라의 국경도시들인 라선시와 하싼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가 성과적으로 완공"

–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 보장할수 있는 두만강자동차다리가 완공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가 축성보강"

– "인적교류와 관광, 상품류통 비롯한 다방면적인 협력 활성화"

– "야꼬브 노비첸꼬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선린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의 발현"

o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이 7일 라선시와 하싼에서 동시에 진행"

o (미슈스틴) "두 나라 관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

-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일치”
-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선린, 호상원조는 국제정세에 구애되지 않아”, “로씨야는 앞으로도 쌍무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o (박태성) “다리 완공, 쌍무협조 전반에 새로운 력동 더해주는 의의깊은 사변”

- “조로 친선협조의 기념비적재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고 쌍무관계발전에 줄기찬 활력”
- “두나라 정부는 다리건설을 통해 축적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 위한 협력사업에서 실질적인 결실 계속 이룩해나갈 것”

o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은 각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쌍무교류와 장기적인 협조계획들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리행해 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

준법의식 함양 관련 수기 연재

1 개 요

o 북한은 "법과 우리 생활"이라는 수기 연재를 통해 인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강조(9.8. 노동)

* 8.11. 첫 보도 이후 네 번째 연재 기사

- (구성) △"요령주의"로 법을 준수하지 않았던 과거 경험에 대한 자기비판 △준법의식의 중요성 인식 △법 준수 노력을 통한 성과 창출
- 비료공장 지배인의 일화를 소개하며 "위법행위"의 원인을 "양심과 자각의 결여"로 지적, 법규범 준수의 중요성 강조

o 새 5개년 계획 등 당 9기 과업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상적 단일대오 형성 중시, 이를 위한 사회주의법무생활 기풍 확립 및 형식주의 타파 주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8. 노동)

o "법규범과 규정에는 경중이 따로 없다."

- "력률이 기준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 "바쁜 고비만 넘기고 보자고 하면서 그의 의견 일축",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은 관심 밖"
- "전력법 제62조,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 "무효전력보상장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전력설비 이용, 나라의 전기 낭비", "극심한 본위주의에 물젖어 위법행위 자행"
- "나라의 법, 어느때, 어떤 환경에서나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적 요구", "설비들 전기절약형으로 개조, 저압정전축전기 규정대로 설치", "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계획 넘쳐 수행"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정형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시작을 알리며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성과·편향을 평가(9.8. 노동)

- (성과) 전국 각지에서 도로포장 등 도로개선공사, 강하천제방 보수·정비, 살림집 보수 등 도시경영 및 생태환경보호사업 수행

  * (자강도) 계획된 도로포장, 압록강제방 성토 등 정비 (황남) 태양빛발전소 건설, 도소재지 소층살림집·상업봉사건물 개건보수 등 각지 성과 소개

- (편향) 일꾼들의 무책임성, 완만성으로 과제 미달, 형식적 사업 진행 등

o 일꾼들의 높은 책임감과 무조건·철저한 실행력을 통한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성과 독려

- 제9차 당대회 시 "도시경영사업, 재해위기 대응, 법·감독기관들의 생태보호사업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등"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 관련 제반 과업 제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8. 노동)

o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새롭게 분발해야"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 전국에서 거리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도로기술개건과 강하천정리, 해안보호시설물공사 본격화"

-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서 (자강도) 계획된 도로포장과 압록강제방의 성토 및 장석쌓기, 청천강바닥파기 등의 과제를 원만히 수행, (황해남도) 태양빛발전소를 건설하고 도소재지의 소층살림집과 상업봉사건물개건보수를 진행, (기타) 많은 지역들에서 중소하천들의 물통과능력을 높이고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옹벽공사와 물도랑대보수, 도로안전시설물들의 제작설치에서 높은 실적"

- "일군들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옳게 이끌어나갈 때, 당정책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혁신", "치밀한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 혁명적인 일본새는 사업의 성과적 담보"

북한 정권 수립(9.9.) 78주년 관련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정권 수립일(9.9.)을 예년(비정주년) 수준으로 경축(9.9.-10. 노동)

- (김정은 위원장) 9.9. 국기게양식·중앙선서모임*, 노력혁신자·공로자 기념촬영

  * △(장소) 평양의사당 △(진행) 국기 입장→국기 게양→선서(김 위원장 선창)→김 위원장 연설 △(참석)당·정·무력기관 지도간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 책임일꾼, 인민군 지휘성원, 평양시 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해외 축하) △중국·러시아 등 외국 정상 축전·꽃바구니 전달 △총련 축하문 △동포·외국인사 꽃바구니 전달 등

- (행사) △경축공연, 연회(9.9.) △간부, 금수산태양궁전 및 혁명·애국열사릉 방문(9.8.) △시가행진·경축야회(9.8.) △평양시 중앙급 대학 간 수영경기(9.8.) △근로단체 행사(9.7.) △조각·공예축전(9.3.~) 등

- (보도) △9.9.『노동신문』기념사설 △국기·국장 관련 기사 게재 등

o 대외 메시지 발신 없이, 애국을 강조하며 내부 단합에 중점

- '25년에 도입된 국기게양식·중앙선서모임을 2년 연속으로 개최, 고위간부의 국가·인민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

  * 선서 내용은 국가·인민에 복무, 헌법·사회주의 수호 등(전년과 동일)

- 김 위원장 연설은 주민에 대한 감사와 격려, 애국심 및 국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래 기대감 부여 등 대내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

- 중·러 정상 축전은 중→러 순으로 보도, 북중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

  * △('23년) 중→러 順 △('24년) 러→중 順 △'25년 러(9.4. 발송) 9.5.→중 9.9. 보도

- 정권 수립일 즈음 강건호 취역식(9.6. 원산항), 북러 자동차다리 준공·개통식(9.7.) 등 주요 행사 배치를 통해 강국 건설 성과 및 북러관계 과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9.-10. 노동)

o "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진행"(9.10. 노동)

– "조선 인민의 간고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었으며 존엄 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변혁하고 융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천해졌음.”

- “우리 식의 발전을 힘 있게 이룩해 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역력히 과시하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음.”
-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 있는 전진을 이룩해 나갈 의지”

o “김정은 위원장, 국경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9.10. 노동·중통)

-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됨.”
-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써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애국근로자의 긍지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 가리라는 기대”

o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꽃피워 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을 위해 헌신분투하자”(9.9. 노동)

-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평안을 영원히 지켜 줄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갖춘 강대한 나라로, 거창한 변혁투쟁으로 인민의 모든 꿈을 실현해 나가는 전도양양한 나라로 빛을 뿌리고 있음.”
- “공화국은 국정의 천사만사를 인민의 숙원 실현에로 철저히 지향복종시켜 나가는 참다운 인민의 보금자리 … 인민의 꿈과 이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는 유일무이한 인민의 세상임.”
-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총비서 동지의 고마운 은덕을 더욱 깊이 새겨안아야 함. 당중앙이 걸머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함.”
- “모두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해야 함.”
-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의지에 발맞추어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하고 또 분발함으로써 올해 계획된 과업들과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드팀없이 집행하여야 함.”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최 추진

1 개 요

o 북한 정보산업성은 10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 개최 예정(9.10. 노동·중통)

* △일시·장소 : 10월 하순, 과학기술전당 △주제 :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새 시대와 정보화》

- (전시)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국가 업무의 정보화 △정보기술 부문의 성과를 실물과 모형, 가동형 전시물 등의 형식으로 전시하고 소개
- (경연) △인공지능기술 제품 △로봇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한 경연을 진행하고 △디지털TV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제품 생산업체 간 경연도 진행할 예정
- (강의) 과학기술발표회 및 세계 정보기술·인공지능산업·로보트산업의 발전추세 강연

o 전람회에서는 △10대정보화모범단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 △10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 등, 올해 △최우수정보기술자 △최우수프로그래머 등도 선발·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0. 노동·중통)

o “정보산업성의 주최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이 10월 하순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시대와 정보화》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람회”, “국가업무의 정보화, 정보기술 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성과들을 실물과 모형, 가동형전시물 등의 형식으로 전시하고 소개 선전”
- “인공지능기술제품경연과 로보트경연, 프로그람작성경연을 진행하며 수자식TV, 지능형손전화기를 비롯한 정보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 사이 경연도 진행”
- “과학기술발표회와 세계적인 정보기술, 인공지능산업, 로보트산업의 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도 예견”

o “우수한 단위와 기업, 제품들을 선정하고 10대정보화모범단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 10대최우수정보기술제품 등으로 평가하며 올해의 최우수정보기술자, 최우수프로그람작성자들을 선발평가”

-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6》은 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의 있는 계기”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 수립(9.9.) 축전 관련 시진핑 주석에 답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9.12.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정권 수립(9.9.) 축전*에 대한 답전을 발송(9.13. 노동·중통)

* 시진핑 주석은 9.9.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발송(9.9. 노동·중통)

- '25년에는 9.21. 답전한 것과 비교해, 올해는 3일 만에 답전

o '25년 답전과 유사하게 시진핑 축전에 대한 사의, 중국과의 연대, 시진핑에 대한 지지 등 북중 친서의 의례적 내용으로 구성

- 다만, "언제나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형제적중국인민",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 등 친선적 표현을 강조하며 최근 북중관계의 진전을 시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3. 노동·중통)

o "총서기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축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

– "총서기 동지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은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는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

o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수호·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

– "형제적 중국 인민이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재삼 표명"

–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

가을철위생월간사업 참여 독려

1 개 요

o 북한은 가을철위생월간을 맞아 각지 위생·생활환경 개선 동향 선전(9.13. 노동)

* 위생월간사업은 매년 봄(3~4월)·가을(9~10월)철,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지도하에 진행

- 생태환경 개선, 장마철 피해 복구, 녹지 조성, 전염병 매개체 제거 등 추진

o 모범사례 확산과 단위별 경쟁 등을 활용, 위생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

- 당의 시혜에 대한 보답 및 애국심을 강조하며 대중 참여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3. 노동)

o “가을철위생월간사업을 더욱 힘있게”

- “새 생활, 새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한 각지 일군·인민의 애국적열정에 의해 활기차게 진행”
- “현재 많은 지역과 단위들에서 위생문화사업을 생태환경보호사업과 연관시켜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환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 추진”
- “평양시 올해 장산소 하천과 보통강 면모 일신, 수도의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 “모란봉·화성구역을 비롯 거리와 마을을 환하게 꾸리기 사업”
- “자강도, 장마철의 영향으로 손상·어지러워진 부분과 개소들 원상복구”
- “평남, 강원도 등 여러지역, 원림경관 조성”, “특히 새 살림집 받아안은 농업근로자들, 집안과 주변환경을 깨끗이 거두고 정성껏 관리”, “개성시, 전염병 매개체 없애기 위한 사업과 위생문화시설 관리하기 위한 사업”
- “이밖에도 많은 지역들이 사회주의 이상촌들이 연이어 솟아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위생문화사업에서 성과 이룩”, “위생문화사업을 애국사업으로 떨쳐나선 각지 일군·근로자들의 열의에 온 나라가 더욱 환해져”

o “주인다운 자각과 일본새로”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대중 열의 발동, 생산문화·생활문화확립에 성과”, “(평성시 중덕동) 인민반별 경쟁분위기 고조, 관내 생활환경 환해져”, “(강령군 광천농장) 향토애, 당에서 마련해준 새집·새 마을을 자기 살점처럼”

인민군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 협동화력습격훈련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12.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협동화력 습격훈련 진행 보도(9.14. 중통)

* 지도 : 박정천(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 김정은 위원장 불참

- 훈련에는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전투체계 동원"

o 이번 훈련은 '통합화력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집중공격능력 과시에 중점

- (박정천) "훈련의 목적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자는 데 있음."
- (유창선) "통합화력지휘체계 가동절차 숙달,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 제고",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키는 전문성 향상" 거론
- 무인기와 다종의 화력간 통합운용을 통한 섞어쏘기 장면도 공개

o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9.7.-11.) 대응 성격도 내포

※ 합참, 북한 9.12. 05:20경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 수차례 발사(250km 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4. 중통)

o "조선인민군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화력 습격훈련이 12일에 진행"

- "훈련에는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의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
- "박정천은 이날 훈련의 목적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있다고 언급"

o "유창선 포병국장은 전략무기 종합관리체계의 구성계통인 통합화력 지휘체계가동 절차를 숙달하고 통합자동화력 지휘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개사격에 의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훈련과업들 중의 하나 설명"

- "적개사격 협동훈련은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조직구조적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 수립 축전 관련 푸틴 대통령에 답전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9.14.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정권 수립(9.9.) 축전에 대해 답전을 발송(9.15. 노동·중통)

* 푸틴 대통령은 9.8.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 발송(9.9. 노동·중통)

- 북한 정권 수립(9.9.) 관련 푸틴 축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 답전 보도는 처음

o '동맹사'·'동맹적 관계' 등 동맹 거듭 언급, 공동사업 확대, 러우전 지지 표명 등 북러 밀착 관계 부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5. 노동·중통)

o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당신이 따뜻한 축전을 보낸 데 대해 무한한 고무, 사의 표시"

o "북러는 순탄치 않은 역사의 풍운 속에서 신의와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수호하며 위대한 동맹사의 새 전기를 써나가고 있음."

- "친선과 선린, 호상원조의 전통과 양국 사이 굳건한 동맹적 관계에 기반한 북러관계의 창창한 내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으로부터 출발"

- "러시아와 공동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가려는 의지 확고부동"

o "나라의 안전이익과 국제적 정의 수호 위한 성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굳게 확신, 친애하는 당신과 형제적 러시아 인민에 대한 지지 약속"

박태성 내각총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내각총리는 득장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평안남도 지역 주요 기업소를 현지요해(날짜 미보도, 9.15. 노동·중통)

* 득장·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등 방문, 평안남도 지역 현지요해 추정

- △7.25. 황해제철 △8.4. 보산제철소 △8.18. 희천정밀기계공장 △8.25. 삼지연·용성기계 등 방문 이어 기간공업 부문 현지요해 지속

o 석탄 증산 및 설비관리·기술 제고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주문

- 특히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위한 대상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 "올해 계획된 새로운 공정 건설 질적으로 완수" 언급

* 탄소하나 화학공업 관련 현지 요해 장소는 미언급(순천화학연합기업소 방문 추정), 공정 확립을 위한 기술적 과제(촉매개발 등) 해결 노력 중인 것으로 추정

- 농기계연구소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용 및 능률적인 농기계의 연구·도입 강조

* 농기계연구소, 지난 '26.1.23. 현대화된 시설 준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5. 노동·중통)

o "박태성 동지가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 "득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과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 찾아 석탄생산 고무격려"

- "새로운 탄밭을 부단히 조성, 탐사와 굴진 채탄, 운반 능력을 제고하여 석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 강조"

o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생산현장 돌아보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 넣어 석탄소비를 줄이면서 호기당출력 끌어올리는 것 지적"

- "선진적 제진방법 도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태환경보호사업 관심 지적"

o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진척정형 현지요해"

- "고급기능 공력량을 강화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여 올해에 계획한 새로운 공정건설을 질적으로 끝낼데 대하여 강조"

o "농업위원회 농기계연구소에서 자연 에네르기 이용 뽐프 개발정형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기계들을 더 많이 연구도입 언급"

o “현지 협의회들에서는 탄소하나 대상건설 필요 설비와 자재 생산보장 토의”

– “과학자, 연구사,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조건보장 문제 등 토의대책”

o “앞서 룡강석재 가공공장을 찾아 생산실태 료해”, “중요대상 건설장들에 더 많은 석재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한미 WMD대응위원회 관련 국방성 대변인 입장발표

1 개 요

o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개최(9.10.) 관련 입장 발표(9.16. 중통)

*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대응위원회는 한미 국방부간 2017년부터 시작된 연례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북한 WMD 정보공유체계 정립 △생물학적 위협 대응 △WMD 사후관리 협력 논의

- WMD대응위원회 관련 첫 입장표명으로 국방성 대변인 입장발표 형식도 처음

o 동 협의체를 'WMD 사용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력정책법' 발동 조건 주장

- "미국과 한국 괴뢰군, 대량살륙무기 위협 대응 운운하며 군사적 대결기도 노골화", "우리 국가에 대한 핵·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대결선언"
- "적들의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안보도전" 주장

o 최근 비핵화 및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담화의 연장선 평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6. 중통)

o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미군과 한국 괴뢰군 무리가 그 누구의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과 관련하여 16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입장문을 발표"

- "10일 미군과 한국의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대량살륙무기대응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이른바 《조선의 잠재적인 대량살륙무기공격》에 대처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능력을 제고하며 연합대응훈련 본격화 합의"

o "이는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책동"

o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 권고"

국방성 대표단, 중국 샹산포럼 참가

1 개 요

o 북한 국방성 대표단(단장 :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9.15.-19.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샹산(香山)포럼*에 참가(9.16.-20. 노동·중통)

* 2006년 출범한 중국 중심의 1.5트랙 다자 안보포럼으로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림.

- 북한은 '18-'19년 인민무력성 부상 파견 이후 7년 만에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20-'22년 코로나 미개최 / '23-'25년 주중대사관 국방무관 참석)

o 김강일 부상, 9.17. 제3차 전체회의 연설 및 중국 국방부장을 면담

- 지역 내 군사적 불안정성 증가 지적하며 그 원인을 "미국과 추종세력"으로 지목
- 적수국으로부터 자위적 방위정책으로서 핵 보유 정당성 강조
- 중국 국방부장과 면담에선 양국 군대의 소통과 협조 강화 문제 토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8. 노동·중통)

o (연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 단장인 국방성 부상 김강일 동지가 17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설"

-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날강도적이며 무제한한 지정학적 탐욕과 힘의 남용, 핵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각양각태의 군사 연습들이 공공연히 자행,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침해"
-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의 근본원인은 대조선 적대시를 변함없는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
- "정당한 자위적 방위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함"

o (중국 국방부장 면담) "조중 두 나라 군대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호상신뢰를 증진시켜 실질적인 협조를 확대하여 공동 발전 이룩, 국제무대에서 패권주의, 신군국주의의 경향 반대 위한 협동 강화 문제 토의"

청진농업대학 준공식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16. 함경북도 청진농업대학 개건·준공식 진행(9.17. 노동·중통)

* 참석 :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허경철(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명호(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 "1만 7,000여㎡의 건축면적,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환경 구비" 선전

o "도안의 일군·건설자들, 설계·시공 요구 지키며 대상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건설성과 강조

o "△김정은 동지의 15차 전국교원대회 연설에 제시된 과업 달성 △교육조건·환경 개선 △교육내용·방법 구체화·다양화·실용화" 등 과제 언급

-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발휘해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이바지해야 할 것"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노동·중통)

o "청진농업대학 준공식이 16일 진행"

– "1만 7,000여㎡의 연건축면적에 교사와 종합강의실, 전자도서관, 실험실,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하여 교수교양·과학기술연구·학과학습 등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진 대학 건설"

o "도안의 일군·건설자들이 설계·시공 요구를 지키며 과감한 실천력·분발력으로 대상공사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

o "대학의 일군·교원들이 김정은이 15차 전국교원대회 연설에 제시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조권·환경 개선, 교육내용·방법 구체화·다양화·실용화 등 통해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키울데 대하여 언급"

– "모든 학생들이 과학농사실천의 개척로를 앞장에서 열어제낄 일념 안고 분초를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당 농업정책의 정당성·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기 위한 애국삭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동향

1 개 요

o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단장 : 김일국), 아시안게임 참가차 일본으로 출국(9.16. 노동·중통)

* 일정 : 2026.9.19.-10.4. / 참가 종목 : 14개 / 선수단 : 107명

- 일본 총련중앙 위원장(허종만) 등 재일동포중앙환영위원회 성원들과 일군들, 동포 70여 명이 대표단을 맞이(9.17. 조선신보)

※ 일본에서 쓰이는 <북조선> 호칭에 대해 '고질화된 적대시정책의 산물' 지적·비난, 대신에 'DPP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 호칭 사용 제기(9.17. 조선신보)

- 9.12.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와 조선선수단 아이찌동포환영회 기자회견, 정식국호 사용 요청 연장선(9.13. 조선신보)

o 북한 선수단, 재일동포들의 응원 속에 아시안게임 개막식 입장 행진(9.20. 조선신보)

- 이에 앞서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및 체육선수단, 재일동포중앙환영회모임 참가(9.19. 조선신보)

* 참가자 : 김일국(위원장), 박천종(단장), 허종만(위원장), 박구호(제1부위원장), 각 부의장들, 여성동맹 등 단체일군·동포 180여 명

o 북한은 금번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107명 선수단(관계자 포함 시 180여 명) 파견, 국제무대에서 우수성과 확보 및 '체육강국' 위상 선전 목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6. 노동·중통, 9.17., 9.19.-20. 조선신보)

o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5일 평양을 출발"(9.16. 노동·중통)

- "총련중앙 허종만 의장이 박구호 제1부의장, 총련 아이찌현본부 김영석 위원장 … 일군들과 체련 역원들, 동포들 70여 명과 함께 대표단을 환영"(9.17. 조선신보)

o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및 체육선수단 재일동포중앙환영모임이 19일 아이찌현내 호텔에서 진행"(9.19. 조선신보)

- "재일동포들의 아낌없는 지지성원과 열광은 선수들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힘과 용기"

- "조선사람의 강렬한 정신과 기상,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공화국 체육인으로서의 용맹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과시할 것"

o "조선선수단 공화국기 휘날리며 행진"(9.20. 조선신보)

김여정 부장,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언급 관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 중 북한의 비핵화 언급 관련하여 비난 담화를 발표(9.17. 중통)

* △"북·러 불법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 촉구"(9.14. EU 기조발언)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북핵 우려 표명

- IAEA 관련 김여정 명의 반응은 처음, 통상 관련기관 명의 수준 대응

* (IAEA 관련) △'25년 오스트리아 빈 대표부 공보문 △'23년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담화

o IAEA의 '비핵화' 지적을 일축하며 '핵보유국 지위' 입장 재확인

- "자동응답기", "잡음" 등 IAEA 논의를 폄훼, 정세 악화 책임을 서방에 전가

* "조선을 반대하는 불량배들만 없다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

- 핵무력 '영구고착' 주장과 더불어, 평화와 안전보장 수단으로 정당화

* "강력한 그 힘의 존재는 국제불량배들의 횡포를 억제,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중통)

o "국제원자력기구총회에서 울려나오는 귀에 익은 잡소리",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처럼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

o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 부질없는 헛고생인지 알아야"

–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 최고이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음."

o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 힘의 존재는 국제불량배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음."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관철 투쟁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한 △종합봉사소 봉사성원들의 기술전습 △ 공장의 기계설비 조기 생산 △특색있는 제품 개발 등 투쟁성과 선전(9.17. 노동)

- (종합봉사소 인력 기술전습) 상업성 주도하에 수백 명의 전습생(판매원, 접대원, 요리사, 이발사)들을 대상으로 평양 소재 상업·급양·편의봉사망에서 실기강의와 실습 진행
- (기계설비 조기 생산) 용성기계연합소 금진강기계공장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설비(감속기 100여대)를 계획보다 빠르게 생산
- (새 제품 개발·품질 제고) 평안북도 시·군은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갖가지 특색있는 제품 개발과 질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호평 등 성과 확대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노동)

o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하여"

- "상업성에서 새로 일떠서는 시·군종합봉사소들의 운영을 위한 기술전습을 활발히 진행, 지금 수백명의 전습생들이 수도의 여러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에서 자기 직종에 따르는 실기강의와 실습을 받고"
- "평양제1백화점과 대성백화점에서는 판매원들에 대한 실습이, 화성관에서는 접대원들에 대한 실습이 … 청류관과 창광봉사관리소의 여러 급양봉사망에서 요리기술전습을 받고있는 전습생들 … 창광원, 청류원을 비롯한 편의봉사기지들에서는 리발사, 미용사들에 대한 기술전습이 심화"
- "기계공업부문에서 경공업공장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상설비 제작을 힘있게 다그치고 …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금진강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00여 대의 각종 감속기 생산을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결속하는 성과"
- "평안북도의 여러 시·군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식료공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유리성을 이용하여 갖가지 특색있는 제품들을 개발 생산"
- "운산군 식료공장에서는 지역에 흔한 잣을 가지고 … 잣가공품을 생산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 구성시 식료공장에서는 산열매로 제품의 가짓수를 계속 늘리고 … 대관군 식료공장은 산나물장절임을 특산품으로 내놓고 신의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군에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진행(9.17. 노동·중통)

* 일시·장소 : 9.15.-16., 인민대학습당 / 주제 :《인공지능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기술연구개발》
** 주최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 /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등

o 본 행사는 제9차 당대회 결정과 관련 "인공지능 부문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보급·일반화"하여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개최

- △지능화·무인화 수준 제고 관련 90여 건 논문 제출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수준 향상에 관한 토의 진행 △대규모 언어 모형 기술, 인지과학 기술 등 강의 제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노동·중통)

o "전국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의 주최로 15일과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

- "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인공지능 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여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목적"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제1사범대학, 차광수신의주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20여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
- "《인공지능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기술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 "인민경제의 지능화, 무인화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는 90여 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
- "지능형로보트기술개발수준을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 토의"
- "대규모언어모형기술과 인지과학기술의 세계적발전추세에 대한 강의들"

o "인공지능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고 산업화하여 경제장성과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

청년들의 주요 분야 성과 선전

1 개 요

o 북한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각 분야별 청년 성과 선전(9.17. 중통, 9.18. 노동)

- △석탄 △시멘트 △기계공업 △학술 △방직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언급

o 특히, 김책공대 재료과학기술학부 재료공학과 5학년 논문 발표 실적을 소개하며 "나라의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논문을 지향"했다고 선전(9.17. 조선신보)

- 학급 담임인 심경호 연구사의 지도로 박현성, 김일혁 등 5학년 학급 전원이 신소재 가공 분야 SCI급 논문 발표, 청년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성과 과시

  * 『Applied Physics A: Materials Science & Process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등 SCIE 저널에 논문 등재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중통·조선신보, 9.18. 노동)

o "충성과 보답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회주의애국청년선구자들"(9.17. 중통, 9.18. 노동)

-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수동석탄생산사업소 운곡갱의 사회주의애국청년선구자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 석탄증산에 이바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청년선구자들, 부속품 원만히 생산보장",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사리원방직공장 직포공" 등

o "학급 전원이 국제학술잡지(SCI급)에 론문 발표"(9.17. 조선신보)

-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과학기술학부 재료공학과 5학년 학급전원이 국제학술잡지(SCI급)에 론문 발표", "《알루미니움판직접압연을 위한 주입장치의 설계정수최량화》를 비롯한 새 재료가공분야 관련 론문"
- "학급을 담임한 심경호 연구사(43살, 박사 부교수)", "박현성 학생(21살)이 학급에서 처음으로 론문 발표", "김일혁 학생(32살) 연구성과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 국제학술잡지에 발표"
- "나라의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론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향",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 집단적학습열의 고조"

가을철 산불방지사업 강조

1 개 요

o 북한은 가을철 산불위험기(9~11월)에 맞춰 모든 일꾼·근로자들의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책임적 자세 주문(9.17. 노동)

- 특별히, 산림감독원·산림순시원·산불감시원들의 책임·역할을 강조

  * △담당 산림지역의 순찰 및 입산규제 관련 감독통제사업 강화 △담당 산림지역의 산불막이 시설물 관리, 방화기재·물저장고·물통 등 구비

o 북한은 매년 3~5월, 9~11월 '산불위험기'로서 산불방지를 위한 전군중사업 전개 등 각종 대책을 주문, 산림자원 보호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7. 노동)

o "지금은 산불위험기"

- "가을철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불방지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발생근원을 빠짐없이 찾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

- "산불을 근절하는데서 누구보다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은 일군들, 만일이라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작전하며 실천해 나가야"

- "산림감독원들과 산림순시원, 산불감시원들이 담당구역의 산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것", "비정상적인 요소와 현상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즉시 대책을",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입산규정과 질서에 대하여 다시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담당한 산림지역의 산불막이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며 방화기재와 물저장고, 물통들도 언제든지 리용할 수 있게 충분히 구비해 놓아야"

- "산불방지사업에서는 누구도 례외로 될 수 없으며 광범한 군중이 사상적으로 발동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

김여정 부장, 미국《퍼시픽 뱅가드》연합훈련 비난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9.17. '퍼시픽 뱅가드(Excercise Pacific Vanguard) 2026'을 계기로 미국 주도 군사연습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9.18. 중통)

* '퍼시픽 뱅가드'는 미국 주도로 '19년 시작된 중국 견제 성격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으로 올해 8.30.-9.10. 기간 개최, 우리 군은 태풍으로 함정 미참가, 연합참모단 5명 참석

- '퍼시픽뱅가드' 계기 반응은 최초, 동 계기 우리민족끼리('23), 외무성 홈페이지('22), 조평통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19)을 통해 미국 군사훈련에 대한 종합 반응시 언급

o 미국 주도 역내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핵 억제력' 정당성 강조

- 군사훈련을 대조선 위협으로 인식, 한미일 참여 훈련에 강한 경계심 표출

* "일본과 한국이 동참하고 있는 불유쾌한 사실", "미일한 3각군사공조 목표가 조선"

- 역내 미국 군사훈련을 '지역패권전략'의 일환으로 규정, 핵 억제력 정당화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8. 중통)

o "퍼시픽 뱅가드, 미국이 지역 진영대결 위해 고안해 낸 전쟁놀이"

– "올해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연합공중훈련 <피치 블랙>, 나토 성원국까지 참가한 <림팩> 등 아태지역 미국 주도 다국적 군사연습 부지기수"

o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도발적 행보에 의한 정세 격화 상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명백히 인식시켜주고 있음."

– "개인적 견해를 말한다면 국가안전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물리적 힘 역시 강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음."

o "대조선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의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될 필요성을 제기"

–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국가의 최고이익과 군사주권, 지역의 안전환경이 엄중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적 의무에 따른 조항들을 발동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

《건설부문일군집중강습-2026》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13.-17.《건설부문일군집중강습-2026》 진행(9.18. 노동·중통)

* 진행 : 개강사(김정관 당비서) → 개강선언 → 강습 진행
** 참석 : 중요대상건설 담당 일군·지휘관 및 내각·건설건재공업성·국가건설감독성·국가설계총국·평양건설위원회 등

- (연설)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전국 탄광마을의 현대적개변' 결정과 관련, 건설사업에서 △일군 역할 제고 △행동의 통일 △적시 대책 마련을 강조
- (경연) △건축의 정책화 및 건설공법의 엄격한 준수 △시공 역량의 질적 강화 △건설장비·건설감독사업 개선 △건재 생산 능력의 확장 등 정책적 과업 제시
- (강의) △살림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의 적극 수용 문제 △골조식 건물의 질적 시공 △건축물의 마감 시공, 도로 건설 △노동 안전 대책 등 관련 강습 진행

o 참가자들은 △마감건재의 다품종·질 제고 △원림조성 △자체 건재 생산 토대 구축 △견고한 마감건재 개발생산 △건재의 자급자족 등 실현할 것을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8. 노동·중통)

o "《건설부문일군집중강습-2026》 13일부터 1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
-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맞는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지니고 새시대 건설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유능한 지휘성원들로 활약하도록 하자는데 목적"
- "중요대상건설을 맡은 단위일군들과 지휘관들,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 감독사업을 담당한 일군들, 내각과 건설건재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설계총국, 평양건설위원회,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 참가"

o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관 동지 개강사"
- "김정은 동지께서 …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전국의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
- "전국적 판도에서 건설전구들이 립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전개", "방대한 건설목표 수행에서 관건으로 되는 건설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건설사업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건설역량을보다 강화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 중요"

o “강습에서는 먼저 일군들이 건설부문 앞에 제시된 당정책적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데 대한 문제 취급”

- “건축의 정치화, 정책화와 함께 건설공법의 엄격한 준수, 시공역량의 질적 강화, 건설장비와 건설감독사업의 부단한 개선, 건재생산능력의 확장 등 중요한 정책적 과업 언급”
- “일군들부터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사이의 3자합의 강화, 시공의 질제고, 공사조직과 지휘의 혁신, 기능공양성체계의 확립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
- “살림집 건설에서 조립식 공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골조식건물을 질적으로 시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건축물의 마감시공, 도로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설”
- “마감건재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이며 원림 조성을 과학 기술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자체의 건재생산토대를 구축하고 견고한 마감건재를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

o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과 건설 정책으로 무장, 전문 기술지식과 필수적인 방법론, 묘술을 새롭고 폭넓게 습득하였으며, 건설 혁명의 전위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

《지적소유권부문전람회-2026》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10.-17. 과학기술전당에서 《지적소유권부문 전람회-2026》 진행(9.18. 노동)

* 주제 : 《지적소유권과 단위발전》 / 참가 : 김승두(당비서), 전승국(내각부총리-개·폐막사), 출품단위 등

- 370여 개 단위 참가, 발명·특허·상표·공업도안·저작권 등 1600여 건 출품

o 지적소유권 사업의 우수 성과·경험을 공유하고 지적재산 창조·유통 분위기 조성

- 지적재산권의 실제 활용을 통한 단위·지역 발전 및 인민생활에 기여 도모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8., 9.20. 노동)

o "《지적소유권부문 전람회-2026》 9.10.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9.11.)

- "지적소유권 활용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한 성과·경험 일반화하여 사회주의전면적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목적"
-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 370여개 단위 참가, 지역별 전람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1600여건의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저작권 등 출품"
- (연설) "지적소유권의 효과적 이용은 국가의 전면적부흥에 중요한 문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유통 분위기 고조 의의"

o "《지적소유권부문 전람회-2026》 9.17. 과학기술전당에서 폐막"(9.18.)

- "전람회기간 지적소유권사업 성과·경험이 적극 공유, 지적재산의 창조 및 유통분위기가 고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더욱 높아져"

o "지적재부의 창조와 활용으로 다같이 발전하자"(9.20.)

- "룡남산지적소유권사무소, 대학에서 획득한 지적소유권들이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발전, 인민생활상상에 실지 이바지되도록 사업 적극 전개"
- "평양지적재산류통협조사 자문 및 중개봉사 진행, 기술제안 공유·확대도입"
- "공업도안권을 받은 놀이감 구매력 올해 몇배로 장성", "상표권을 적극 활용, '봄향기' 화장품이 인민 문명생활에 스며들고 세계에 이름떨치게"
-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 여러 단위 경험 교류"
- "군의 발전에 필요한 많은 기술 한꺼번에 알게돼", "경쟁심도 높아져"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9.16.-18.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 생산실태 점검(9.19. 노동·중통)

* 동행 :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식(당중앙군사위 위원),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리병철, 리일환, 김여정, 김재룡, 오영재(당 중앙위 간부들)

-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 집행", "새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 언급 등 증산 독려

* 올해 들어 6번째 군수공장 방문, 6.6. 방문 이후 3개월만

o 김 위원장은 '포병전력 현대화'와 '군수공업 확대 강화' 강조

- "강력한 포병무력건설은 전쟁억제와 전쟁수행의 기본핵", "포병 등 국가방위력 현대화 성과들은 무력 구성 및 전쟁대응계획의 중대한 변화" 언급
- "무기체계 인공지능수준 제고",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 등 과업 제시

※ 보도문에는 무인기 관련 언급이 없으나 자폭형 무인기 등 사진 공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9.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 생산실태 요해"

-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집행 만족 표시"
- "새 5개년계획 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 것 강조"

o "강력한 포병무력건설은 전쟁억제와 전쟁수행의 기본핵"

-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의 구성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대응계획의 중대한 변화"
-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어버릴 것 확언"

o "생산능력확대와 기술공정 현대화, 전투무기체계들의 인공지능화 수준 제고, 포 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 등 정책적 과업 밝힘."

김여정 부장,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결의 채택 관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9.19.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총회의 '북한 비핵화' 결의(9.17.) 관련 비난 담화를 발표(9.19. 중통)

- △IAEA 결의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9.18.) 발표, 연이어 김여정 부장 담화 보도
  △IAEA 총회 '북 비핵화' 관련 김여정 담화(9.17.) 이후 2일만

o 합법적인 IAEA 탈퇴 주장하며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구속력 및 IAEA '간섭' 권한을 부인

* "수십년전 합법적으로 IAEA를 탈퇴한 NPT 조약 밖 핵보유국"

o 미국과 나토·한·일 핵협력 동향 등을 열거하며 IAEA 이중기준 비판

* "IAEA, 미국의 노골적 핵전파, 한국 핵잠 도입에 침묵", "무기급 핵물질 비정상적 과잉축적 일본 외면"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9. 중통)

o "국제원자력기구, 우리 국가의 자위적·합법적 핵활동 무시하는 반공화국 《결의》 강압채택", "조선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함."

- "이미 수십년전 합법적 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활동은 기구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권한·자격 없음."

o "반면 국제원자력기구, 미국의 노골적 핵전파 행위와 한국의 핵잠 도입 계획에 침묵, 이중성·편견성 노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

o "개인적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전파 방지제도를 좀먹는 장본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대바른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구겨진 체면을 챙길 수 있을지 모름."

o "미국·적대세력의 핵위협, 핵전파 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 "그 어떤 경우에도 미·서방의 관용에 주권·안전권을 저당잡히지 않을 것"

o "핵역량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임."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18.-21.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진행 (9.19.-22. 노동·중통)

* 참가 : △김정은 위원장(개·폐강식) △리일환·주창일(당 비서), 박영일(당 인민군위원회 비서), 최창학(당 제1부부장) △당 선전선동부 및 해당 부서, 도·시·군 당 선전선동부문, 성·중앙기관·기관·공장·기업소·농장, 혁명사적·이론선전·계급교양·문학예술·출판보도 부문, 당 간부 양성기관 및 근로단체 일꾼

- △(9.18.) 김 위원장 중요연설 및 개강선언, 최창학 보고, 리일환 강의 △중요연설 집중학습, 강습, 맹세문 채택 △(9.21.) 김 위원장 강령적 연설 및 폐강선언

o '22년, '24년에 이어 3회차 강습회 개최, 2년 간격 정례 개최 흐름 정착

- 김정은 위원장 최초 참석 및 연설 △사상사업의 중요성 부각 △선전선동 사업 혁신, 일꾼 자질·능력 개선, 당 선전선동부 역할 제고 등을 주문

* △('22년) 김 위원장 서한 전달 △('24년) 김 위원장 발언 전달(내용 미보도)

- 내용적으로는 △'김정은 혁명사상' 일색화 △제9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상공세 강화 등 △선전선동 수단·방법 개선 등을 논의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19.-22. 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개강식 연설(9.19. 노동·중통)

-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과 입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 일군 강습회"
-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 온 발전이라는 이 여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충진해 온 사상적 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 것"
- "그 어느 때보다 사상공세를 강화하는 데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대중적 열의가 현저히 격앙", "하지만 우리는 자찬과 자족을 경계", "선전사업에 내재되여 있는 편향들에 대하여 개괄분석"
- "사상사업의 수단과 방법이 변하는 것보다 객관적 환경 변화의 흐름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음.", "당 사상사업의 긍정적 변화는 마땅히 시대 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현실보다 앞서나가게 공세적으로 해야 함."

-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

o 최창학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보고(9.19. 노동)

- “최근 사상사업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적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전개”
- “당 선전부문 앞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의 무한한 사상정신력을 총지향, 총발동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 있음.”

o 김정은 위원장 폐강식 연설(9.22. 노동·중통)

-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이라는 바로 그것”
- “새로운 투쟁행정에서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은 그 어떤 물질적 토대가 아니라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공민들의 애국열의와 비상한 용기이며 그것을 더욱 크게 하여 개척과 창조로 전환되게 하는 사상동원력임.”
- “우리 당 선전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함.”, “내용부터 새시대의 요구와 풍격에 맞게 발전풍부화”,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함.”, “시대가 발전하는 데 맞게 선전교양 형식과 수단도 부단히 발전하여야 함.”
-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가 변하는 것을 두고 자찬하면서 사상교양, 정신무장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제일자원을 헐어 사상누각을 쌓는 격이 되고 말 것”
-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
- “부정적인 사상요소에 대해서는 몸에 칼날이 닿을 때처럼 예리한 감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 선전일군의 책임적인 자세”
-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당의 사상, 사회주의 원칙에 저촉되는 부정적인 현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행위에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됨.”
- “선전부문 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상사업의 실제적인 혁신과 직결된 급선무”
- “선전부문에서는 정치이론 수준과 실무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부터 시작”
- “일대 사상전의 강력한 실행으로써 당의 사상사업을 총괄하며 선전선동을 전업으로 하는 부서로서의 본도와 탄력을 되찾아야 함.”

MSMT 3차 보고서 발간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9.21.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 3차 보고서 발간(9.16.) 관련 담화를 발표(9.21. 중통)

- MSMT 관련 기존 반응 대비 격 상향, MSMT 신설('24.10.16.) 당시 최선희 외무상 담화('24.10.20.) 이후 실무선 반응

o "국가간 교류협력은 합법적 권리"임을 주장, 미국·서방의 유엔헌장 위배 비난

- MSMT를 "유령집단"으로 격하, MSMT의 정당성 부정

* "유엔을 대변해 활동할 사명·권능을 부여받은 적 없음.", "미국 지령 밑에 온갖 음모론 고안"

- 기존 유엔총회 결의(1979년 채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외협력의 정당성 주장

*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 어떤 국가도 타국 내정·대외문제 간섭 권리 없다고 명기"

- 미국·서방에 대해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령토완정 위협" 지적·비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1. 중통)

o "미국 주도의 이른바 《다무적제재감시팀》, 조선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 일상적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발표"

- "존재명분, 목적에 있어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

o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있는 교류와 협조관계는 쌍무 및 다방 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행사의 일환"

-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대상으로 될 수 없음."

o "유엔헌장, 평등·자결 원칙에 기초해 국가 간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유엔의 주요 목적의 하나로 규제"

o "현 국제관계에서 배격당해야 할 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세계적 범위에서 감행되고 있는 미국,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상적,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세력의 악의적 기도를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

청년, 여성의 탄원진출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청년·여성의 탄원·진출 동향을 선전(9.21., 9.24. 노동·중통, 9.25. 노동)

- △(남포) 《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 △(개성) 도시경영, 양곡관리 등 부문 △(양강도) 혜산청년염소목장, 경공업공장 등 탄원·진출 사례 제시

o 한편 북한은 어렵고 힘든 초소에 탄원·진출한 청년층, 애국자 가정 사례를 애국적 소행으로 부각, 새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지속 주문

- 9.24.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 진행,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의지" 강조(9.25. 노동·중통)

  * 평양시 청년동맹 일꾼, 청년들 참가

- 또한,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과정이 "가정의 대물림으로부터 시작"됨을 언급하며 가정 구성원 전체에 혁명·애국의 가풍을 이어갈 책임 부과(9.26. 노동)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1., 9.24.-9.25. 노동·중통, 9.26. 노동)

o "남포시의 9명의 처녀들, 남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로 탄원"(9.21. 노동·중통)

o "개성시의 녀성들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들로 진출"(9.24. 노동·중통)

- "고려동, 라복동, 관훈동, 룡수산동 등 녀맹원들 도시경영부문 초소에 탄원", "웅천동, 승전동 비롯한 동의 녀성들 량곡관리부문으로 달려나가", "학생교복공장으로 자원한 덕암동, 운학1동 등 가두녀성들"

o "량강도 수백명의 녀맹원들 당결정관철을 위한 주요전구들로 진출"(9.25. 노동)

- "혜산시 수십명 녀맹원들 혜산청년염소목장으로 자원진출", "삼수군 많은 녀맹원들 경공업공장, 종합봉사소에 삶의 위치를 정함", "대홍단군 수많은 녀맹원들 원료기지 포전들에 달려나가" 등

o "평양시 청년탄원자들의 연단(9.24.) 진행"(9.25. 노동·중통)

-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탄원진출한 청년들 연단에 출연",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업에 이바지해갈 의지"

o “애국의 가풍은 참된 계승속에 빛난다 - 어렵고 힘든 초소를 대를 이어 지켜가는 애국적인 가정들을 두고”(9.26. 노동)

- “애국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는 유명무명의 애국자가정들”, “혁명의 대가 이어지는 과정, 한 가정의 대물림으로부터 시작”
- “부모들부터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가야 자식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어”, “어제날 부모가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하여 안일·편안을 먼저 찾으려하는 자식, 자기의 참된 자욱을 새길 수 없어”
- “애국자가정, 넋을 물려주는 부모, 이어받는 자식 모두가 자기 가정, 가풍을 나라앞에, 혁명앞에 책임지려는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 “혁명화된 가정의 본보기, 사회의 건전한 세포”, “애국의 가풍, 귀중한 정신적 재부, 우리 국가의 훌륭한 국풍으로 이어져”

김정은 위원장, 신형 중요전투무기체계 시험 참관

1 개 요

o 김정은 위원장은 9.20. 미사일총국이 진행한 신형무기시험을 참관(9.22. 노동·중통)

* 식별 : 김정은 위원장 딸, 김정식(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음.", "국가방위노선 관철을 위한 정상적 활동" 등 수위 조절

o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시험의 군사기술적 의미를 부각

- "첨단국방기술력의 과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수들이 더 잘 알 것",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매우 혹독한 세례로 될 것" 언급

o 군사기술적 수요와 함께 UN총회(9.22.), 미중정상회담(9.24.)을 앞두고 군사적 성과 부각 의도

※ 합참, 북한 9.20.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동해상 발사(450km, 600km 이상 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2. 노동·중통)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 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 "해당 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음"
- "시험은 국가방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

o (김정은 위원장)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국방 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

-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 것이라고 확언"

박태성 내각총리, 농업·건설 부문 현지요해

1 개 요

o 박태성 내각총리는 대동군 등 평남지역 농장과 남흥청년화학,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등을 방문하며 농업, 건설 부문을 현지요해(날짜 미보도, 9.23. 노동·중통)

- △7.25. 황해제철 △8.4. 보산제철소 △8.18. 희천정밀기계공장 △8.25. 삼지연·용성기계 △9.15. 득장·덕천지구청년탄광, 북창화력 방문 등 현지요해 지속

o 작황, 농기계 가동 상황 등 돌아보며 작물 수확, 논판양어 장려 문제 언급

- 남흥청년화학에서는 비료생산공정 대보수를 기간 내 완료할 것을 당부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지난 '21년 사고 발생으로 '22년 비료 생산 부진

o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 평양건재공장을 찾아 질 높은 건재품들의 생산을 독려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3. 노동·중통)

o "박태성 동지가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

o (평남 농장) "평안남도 대동군, 증산군, 평원군, 숙천군, 문덕군의 여러농장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의 첫해 헌신하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

- "논벼작황과 농기계들의 가동실태 등 당면한 영농공정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낟알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데 대하여 강조"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데, 논판메기양어를 장려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지적"

o (남흥청년) "비료생산 공정에 대한 대보수를 제기일에 결속",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 넣어 비료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

o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질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일정별 공사과제를 드팀없이 수행, 모든 작업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

o (평양건재공장) "질 높은 건재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

o "현지 협의회,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수송, 건설감독사업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6 개막

1 개 요

o 북한은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6' 개막(9.23. 노동·중통·내나라)

* △일시·장소 : 9.22. 과학기술전당 △주최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조선나노기술협회 △주제 :《인민경제의 자립화와 나노기술》△참가 : 김일성대, 김책공업대, 국가과학원 등

o 본 행사는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노기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을 널리 보급·일반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출품) 280여 건의 제품, 제안 등 제출 △(강의) '최근 나노기술 발전 실태' 등 진행

- 개막사에서 연설자는 본 전시회가 "나노기술 발전의 면모와 위력을 과시",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인민 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3. 노동·중통·내나라)

o "전국 나노기술 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6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나노기술협회의 주최로 개막"

- "《인민경제의 자립화와 나노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
- "나노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나노기술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는데 목적"
- "과학기술전시회 부문과 과학기술발표회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전시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만년제약공장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군, 박사원생 등이 참가"
- "인민경제의 자립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280여 건의 제품, 제안들이 출품", "이 기간 최근 나노기술의 발전 실태에 대한 강의도 진행"

o "개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나노기술 발전의 면모와 위력을 과시하고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보다 큰 기여를 하도록 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국방과학연구부문, 갱신형 240mm 방사포 시험사격 진행

1 개 요

o 국방과학연구부문은 9.22. 갱신형 240mm 방사포 시험사격 진행(9.24. 중통)

* 사격 지도 : 고병현(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 참관 : 박정천(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정식(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유창선(총참모부 포병국장)

- "갱신형 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 탄도비행방식으로 100km, 활공비행복합방식으로 115km 타격" 가능

o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방 장사정포 전력 교체 등 대남 압박

-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함.",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장거리 타격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함."

o 이번 시험은 26년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남부국경 경계·화력체계 보강"의 연장선 평가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9.22.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간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군수분야 일꾼들을 격려하고 '국가 방위력' 강조(9.24. 노동·중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 중통)

o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 진행"

-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복합 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음."

- "지도간부들은 남부국경의 화력준비태세에서 커다란 변화 확신 견해 표시"

o "박정천 원수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

- "우리는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함."

UN총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최선희 외무상 담화

1 개 요

o 최선희 외무상은 9.24. 제81차 UN총회 계기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9.21.) 관련 담화를 발표(9.24. 중통, 9.25. 노동)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3일 만에 반응 △직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반응(7.22.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계기, 외무성 대변인 담화) 대비 격 상향

  * 최선희 외무성 담화는 '25.11.14. G7 외교장관 공동성명 계기 이후 10개월만

o "대결·대화 양립 불가", 미국의 대적정책 비난 및 핵보유 의지 강조

- 비핵화 언급을 예상된 입장으로 평가 절하, '외무상' 직위 강조하며 '핵보유국 불가역성·영구성' 메시지 발신

  * "외무상으로서 백 년, 천 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핵보유의지 재천명, 재확인"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 중통, 9.25. 노동)

o "미·일·한 외교당국자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라는 것 발표"

- "미국과 그 동맹들,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 다시 확증"

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서 백 년, 천 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핵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함."

o "대화와 대결의 양립은 그 누구에게 통할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o "미국과 그 동맹국들,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 핵보유의 정당성에 명분만 깔아주고, 우리의 대적대미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

o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 핵을 가진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

CTBT 우호국 장관회의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

1 개 요

o 외무성 대변인은 9.24. 제12차 CTBT 우호국(Friends of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장관회의(9.22.) 관련 담화를 발표(9.24. 중통)

* △CTBT 우호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촉진을 위한 협의체로, 2002년 결성 △일본·호주·네덜란드·독일·캐나다·핀란드 6개국으로 구성, UN총회 계기 격년 회의 개최, 회원국 외 국가들도 옵저버로 참여 가능하며 '26년에는 약 70개국 참석

- △당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9.21.) 관련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 이어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논의에 연쇄 반응

* △'CTBT 우호국' 관련 북한 반응 최초, CTBT 관련 담화도 이례적

o 'CTBT 우호국'에 미국 미포함 불구, 미국 핵정책 거론하며 대미 비판으로 연계

- 일본·호주 등 회원국 관련 기존 비판 재차 제기, 비회원국인 한국 핵잠도 거론

* "(호주) 오커스 출현, (일본) 핵보유야망 드러내는 재무장화 책동, (한국) 핵잠기술 전파"

- 국제사회의 "핵군축 의무" 불이행 언급,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배격

* "핵군축의무를 태공하는 나라들의 범죄행위는 묵인, 국제 핵군축제도 근간 뒤흔들려", "국가의 주권과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려 드는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 중통)

o "외무성, CTBT 조기발표 촉진이라는 간판 아래 조선의 합법적, 정당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든 적대세력 행태를 정치도발로 강력히 규탄배격"

o "CTBT의 벗들 성원국들, 미국 동맹관계 또는 추종국", "CTBT 미발표 책임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있음."

- "나토와의 핵공유, 오커스 출현, 한국에로의 핵잠 기술 전파", "비핵3원칙 수정과 헌법 개악 통해 핵보유야망 드러내는 일본의 재무장화 책동"

o "국제사회 핵군축 의무, 핵전파방지 의무 이행을 태공하는 나라들의 범죄행위는 묵인", "국제 핵군축 제도, 핵무기 전파방지 제도 근간 뒤흔들려"

o "일부 불순세력들이 판에 박은 비난소동을 아무리 벌려놓아도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함."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년 관련 전국부문별 과학토론회와 전국대학부문 교수경험토론회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관련 '전국 부문별 과학토론회와 전국 대학부문 교수 경험 토론회' 진행(9.24. 노동·중통·내나라)

* △일시·장소 : 9.21.-23. 김일성종합대학 △주제 :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와 과학교육의 역할》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80여 개 기관

- (사회과학부문 분과토론회) "교육 강국, 인재 강국으로 건설할 데 대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이론 실천적 문제"에 대해 해설하는데 집중
- (자연과학부문 분과토론회) △반도체압력수감소자의 격막형성기술 △칼시움 교환법에 의한 카리장석으로부터 류산카리비료제조 등 2,000여 건의 논문 소개
- (교수경험토론회) 학생의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전공 관련 과목에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채택*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신의주공업기술대학에서 새 교수 방법 및 교수 요강과 관련한 문건 제출

o 북한은 본 토론회를 제9차 당대회의 과업과 관련 "맡은 책임, 본분을 다해 나가려는 교원, 연구사들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 노동·중통·내나라)

o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기념 전국부문별 과학토론회와 전국대학부문 교수경험토론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각각 진행"

-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사회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80여 개 과학, 교육기관의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이 토론회들에 참가"
- "토론회들에서 우리 당의 교육사상 이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논증하는 논문들과 나라의 과학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발표"
-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와 과학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 밑에 진행된 과학토론회에는 2,00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

o “사회과학 부문의 분과토론회들에서 토론자들은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널리 선전하는데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들을 폭넓고 원리적으로 해설”

o “《반도체압력수감소자의 격막형성기술》, 《칼시움교환법에 의한 카리장석으로부터 류산카리비료제조》를 비롯,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논문들이 자연과학부문의 분과토론회들에서 소개”

o “전국 대학부문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한 교수경험 토론회는 대학들에서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전공 관련 과목들에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는데 목적”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신의주공업기술대학 등에서 내놓은 새 교수방법들과 교수요강을 비롯한 교수문건들이 교육학적 효과성과 인식교양적 의의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

o “토론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와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

o “전국부문별 과학토론회와 전국대학부문 교수경험토론회는 나라의 교육사업과 과학기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려는 교원, 연구사들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준 계기”

평양종합병원, 시·군병원 기술전습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평양종합병원의 시·군병원 의료일군 대상 기술전습 성과 선전(9.24. 노동)

-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530여 명의 시·군병원 의료일군, 의료설비기사, 정보설비기사 대상 기술전습과 기술부원장 대상 강습 등 진행

o 평양종합병원의 전문가 양성 및 신설 병원에 대한 지도·지원 역할 강조

- 현대적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설비·정보체계 운용, 기술행정관리 등 신설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진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 노동)

o "전문가양성거점 - 평양종합병원"

- "평양종합병원은 보건 현대화에서 중추적·핵심적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림상연구 및 보급 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양성 거점"
-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전문적 지도, 인적 및 물질기술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보건 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
- "평양종합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새로 일떠서는 시·군병원 의료일군들에 대한 기술전습", "현재까지 3차에 걸쳐 530여명의 시·군병원 의료일군, 의료설비기사, 정보설비기사들을 위한 기술전습 진행"
-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쳐 30여개 시·군병원 의료일군 대상 화상진단과, 종합실험검사과 등에서 현대적 실험 및 검사 기구들에 대한 기술전습"
- "의료설비과, 시·군병원 의료설비기사 60여명 대상 기술전습 3차로 진행"
- "3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시·군병원 정보설비기사 대상 기술전습", "지능의료봉사체계 이론강의, 전자병력기록체계·실험검사정보체계·약국정보체계 등에 대한 실기실습으로 앞으로 도입되는 정보체계에 숙달토록"
- "지방발전20X10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시·군병원 기술부원장 실무강습", "기술행정관리방법, 현대적 의료설비에 의한 진단치료방법, 세계적 추세 강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 동향

1 개 요

o 북한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성과를 지속 보도(9.24.-9.27. 노동·중통)

* △일정 : 9.19.-10.4. △개최국 : 일본 △참가국 : 45개국 외 OCA 난민팀

- 북한은 역도, 정구, 축구, 기계체조, 탁구, 다이빙 경기 성과 선전

* △역도(8개) : 리성금·강현경·박명진·오광옥·리원주(금메달), 방은철·박진해(은메달), 리청송(동메달) △정구(2개) : 리진미(은메달), 리소향(동메달) △축구 : (남자) 8강 진출, (여자) 4강 진출 △기계체조(2개) : 안창옥(은메달), 여자단체전(동메달) △탁구(1개) : 여자 단체전(동메달) △다이빙(1개) : 조진미·김미래(동메달)

o 북한은 역도 등 주력종목을 중심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국제대회 참가

* 리성금, 오광옥 등 역도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아시아신기록 성과 보도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4.-27. 노동·중통)

o “여자력기경기에 출전한 리성금, 강현경 선수 선수 금메달”(9.24. 노동·중통)

– “박명진 선수 남자력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방은철 선수 남자력기경기에서 은메달”(9.25. 노동·중통), “오광옥 선수 여자력기경기에서 영예의 우승, 박진해 선수 여자력기경기에서 은메달”(9.26. 노동·중통), “리원주 선수 남자력기경기에서 금메달, 리청송 선수는 남자력기경기에서 3위”(9.27. 노동·중통)

o “리진미, 리소향 선수들은 연식정구 여자단식경기에서 각각 2위와 3위”(9.24. 노동·중통)

o “남자축구팀 준준결승단계 진출”(9.24. 노동·중통), “여자축구팀 준결승경기에 진출”(9.26. 노동·중통)

o “안창옥 선수 기계체조 여자 조마운동에서 은메달 획득, 기계체조 여자단체경기에서 3위”(9.25. 노동·중통)

o “탁구 여자단체경기에서 3위”(9.25. 노동·중통)

o “조진미, 김미래 선수들은 물에 뛰여들기 경기에서 2위”(9.27. 노동·중통)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년 관련 전국대학생 발명 및 착상전시회 진행

1 개 요

o 김일성종합대학은 창립 80년 관련 '전국대학생 발명 및 착상전시회' 진행(9.25. 노동·중통)

* △일시·장소 : 9.21.-24. 김일성종합대학 △주제 :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발전과 과학기술》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교통운수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 등

o 본 행사는 "대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통해 "가치있는 발명"을 하여 "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지표별 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 50여 개 단위에서 840여 건의 발명 등 출품, 우수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 수여

- 북한은 본 전시회를 "대학생들의 창조적인 응용 능력을 높이고, 해당 기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5. 노동·중통)

o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돐기념 전국 대학생 발명 및 착상 전시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

-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견인해 나갈데 대한 당의 뜻"
- "모든 대학생들이 과학탐구활동을 적극 벌려 새롭고 가치있는 발명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지표별목표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목적"
-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발전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교통운수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 "5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840여 건의 발명 및 착상 제안들 출품"
-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

o "김정은 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시기에 열린 전시회"

- "모든 대학들에서 리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창조적 응용능력을 높여주며 해당 기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서 좋은 계기"

강철수 대적연구원 실장,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비난

1 개 요

o 강철수 실장(대적연구원),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 집단방위 중심' 발언 비난(9.25. 중통)

* 9.16.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제40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반도 안보는 동북아·서반구·태평양의 안정과 연결, 한국은 무역·기술혁신,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 언급

- 북한은 대적연구원 실장 명의의 글 「'집단방위의 결정적 중심'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다」를 통해 △우리 핵잠수함 추진, 한미일 훈련 등 한미의 안보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동북아 진영대립 등을 의도적으로 부각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5. 중통)

o "한국을 세계패권 전략 실현을 위한 침략적인 《집단방위》 체계에 철저히 얽어매놓으려는 기도", "《공동의 위협에 공동대응》 한다는 구실 밑에 동맹국들을 임의의 국제분쟁지역에 내몰려는 강도적인 침략교리"

- "한국의 전 령토가 미국의 해외침략 전쟁수행을 위한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의 제1용병으로서 상전이 요구하는 곳에 제일 먼저 투입"
- "미국이 《거꾸로 된 지도》를 내걸고 한국의 지정학적 용도를 조선반도 밖의 패권전략에 활용할 기도를 공개적으로 로출하고 조중로를 견제할 고정항공모함이니,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니 하고 한국의 쓸모를 부각"

o "한국은 미국의 《집단방위》 체계에 얽매여 《방위수요》를 초월한 국방비 증액, 핵잠수함 건조, 다령역 작전체계와 통합미싸일 방어체계의 편입, 미국산 전쟁장비들의 대량 구매, 미국 함선들의 건조 및 정비 등을 려과없이 받아 물며 제 죽을줄 모르고 특등전쟁노복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

o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사태변화를 예견하고 이미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의 안전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도전도 초강력으로 가차 없이 처절하게 제압분쇄해 버리려는 단호한 립장"

- "미국의 전략적리익에 따라 《집단방위의 결정적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은 집단적 응징의 결정적목표가 될 것임."

국방성 대표단, 베트남 방문

1 개 요

o 북한 국방성 대표단(단장: 려철웅 국방성 부상)은 9.24.-28. 베트남 방문 및 군상주체현판 제막식*에 참석(9.22.-30. 노동·중통)

* 베트남, 8.3. 군사역사박물관에 추모비 건립, 전시공간 조성 및 박닌성 추모구역 정비 결정

- (일정) △9.24. 응우옌 쯔엉 탕 국방부 차관과 차관급 회담 △9.25. 군상 현판 제막식 참가(하노이 군사역사박물관) △9.28. 판 반 장 베 국방부 장관 예방 △박닌성 조선인민군열사추모구역 참배, 베트남 군부대·군의대학 참관 등

o 추모공간 제막식 참석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25년 10월 체결한 국방협력 의향서 구체화 협의 추정

- 베트남 언론 통해 양국 국방 협력 의향서 기반 이행 분야 언급(9.25. Bien phong)

* △(베트남 차관) 고위급 교류, 당·정치 사업, 군종·병종 훈련, 교육훈련, 양측 잠재력·수요 분야 △(북한 부상) 군사의료, 당·정치 사업, 군사 스포츠, 대표단 교류 등 협력 제시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28. 노동·중통, 9.30. 노동·중통)

o (제막식)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 야외전시구역에 건립하게 될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군상기단에 설치한 군상주제현판 제막식이 25일 현지에서 진행"(9.28. 노동·중통)

- "조선은 베트남 인민의 반미구국항전시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도와줌으로써 베트남 혁명승리에 기여", "조선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정신과 희생정신은 베트남 조선 친선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

o (고위급 면담) "체류기간 려철웅 동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방상 판 반 장 동지를 의례방문하고 국방성 부상 웬 쯔엉 탕 동지와 회담"(9.30. 노동·중통)

- "2025년 10월 평양수뇌상봉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국면을 맞이한 조선 베트남 친선관계에 상응하게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

김여정 부장, 지뢰폭발 사고 관련 첫 번째 대남 담화

1 개 요

o 김여정 부장은 9.30.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9.30. 중통)

* △9.21. 지뢰 사고 △9.28. 합참, "북한 지뢰 가능성" △9.29. 대통령,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김 부장은 최근 지뢰폭발 사고를 △'한국군의 자작극'으로 규정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 △향후 DMZ에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

o 북한은 폭발지뢰 사고를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신속하게 발표한 것으로 보임.

* '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시에는 북한 군부가 반응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30. 중통)

o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

o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누구를 의심하면서 정전협정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

o "세상이 다 알다 싶이 우리 군대는 두 해 전부터 국경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일대에서 차단물 공사를 진행",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행사", "한국군부가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음."

o "총탄 한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 "만약 남부국경영구화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한국군깡패들이 경고사격이 아닌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우리 국경부대들은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리성적인 사고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

김선경 외무성 부상, 제81차 UN총회 연설

1 개 요

o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9.28. 제81차 UN총회에서 연설(9.30. 노동·중통)

- UN총회에 '25년 대표단 파견 재개(7년만) 이후 2년 연속 외무성 부상 참석

  * △'25 외무성 부상 △'19~'24 주유엔대사 △'14~'18 외무상 △'12~'13 부상 참석

o 한미일 협력 등 안보 지형을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성 재확인

- 남북관계 별도 미언급, 다만 최근 역내 위협 사례로 거론한 '핵잠' 재차 활용

  * '23년 '대한민국', '괴뢰 정부' 등 표현 사용하며 대남 내용 포함

- 일본을 '특등 전범국'으로 지칭하며 별도로 거론, 비난

- UN총회 개혁 촉구 등 예년과 유사, 다만 올해 특정 친북국가 지지·연대는 생략

o 실제 연설 내용과 비교할 때, 국제정세 평가, 일본 비난, 핵보유국 지위 강조 등 외교·안보 메시지는 보도 내용에 포함하되,

- 'Freedom Shield' 등 훈련명이나 대내 구체적 성과 등은 생략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30. 노동·중통)

o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 범위에서 엄청난 사건·사변, 안보불안정 위기 증대"

– "유엔, 일부 나라 강권, 일방주의로 기능 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당 제9차 대회에서 지난 5년 총화 및 다음 단계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목표 제시, 지난 5년간 괄목할 비약과 발전을 이룩"

– "자력갱생, 자생자활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번영의 길임을 확신"

o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미국 및 추종국가들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가증되는 군사적 대결행위로 지난해와 또 다른 불안정, 긴장격화 상황"

– "미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조준한 미일한의 연합군사체제를 핵요소가 포함된 공격적, 침략적인 군사블럭으로 진화", "미국,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 승인하고 적극 추진"

- “특등전범국인 일본, 재무장화 책동에 박차, 전패국 의무에 완전히 배치”

o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

- “국가수반,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은 강력한 힘에 의해 철통같이 담보되어왔고 앞으로도 불변할 것이라고 언명”
- “조선이 보유한 핵억제력은 주권과 안전, 평화 수호 위한 절대적 힘”
- “물리적,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임.”

o “선차적 급선무는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된 모두를 위한 유엔 건설하는 것”

- “이제는 유엔을 개혁할 때가 되었음.”, “유엔의 진정한 민주화 실현되어야”

제2차 북러 학장연단 진행

1 개 요

o 북한은 9.29. 평양에서 제2차 북러학장연단(대학총장 포럼) 진행(9.30. 노동·중통)

* △주제 :《교육은 과학과 사회발전의 담보》 △참가 : 두 나라의 권위 있는 70여개 대학 총장·학장 대표, 북한 주재 러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

- 연단 기간 △「교육, 자격 및 학위의 호상인정에 관한 협정」 체결 △교육상(리영철), 러시아 과학 및 고등교육성 부상 면담 등 진행

o 지난해 1차 포럼('25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올해 평양에서 개최, 양국 교차 개최 정례화 양상

- 학위 상호인정 협정 체결로 교육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북한매체 주요 내용(9.30. 노동·중통)

o "조로 두 나라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가 적극화 되고 있는 속에 제2차 조로학장연단이 29일 평양에서 진행"(9.30. 노동·중통)

- "(북·러 교육성 부상), 친선과 선린,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선데 대하여 언급"
- "경제와 문화, 자연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과학연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주제로 한 토론 진행"
-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화발전되여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호상협조가 전례 없이 강화", "두 나라 대학들 사이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연구생 및 실습생 파견을 비롯한 협조 발전에서 의의있는 일련의 문제들 제기, 건설적·혁신적 제안들 교환"
- "교육, 자격 및 학위의 호상인정에 관한 협정과 인민경제대학과 로씨야련방대통령 산하 인민경제 및 국가정무아까데미야 사이의 협조에 관한 량해문 조인", "두 나라 교육기관·대학 사이의 교류·협조 위한 실무면담"

o "교육상 리영철 동지가 29일 평양의사당에서 제2차 조로학장연단에 참가한 꼰스딴찐 모길렙스끼 로씨야 과학 및 고등교육성 부상과 담화"(9.30. 중통)

주요 인물동정

김정은(총비서)

9.2. 베트남 창건 81돐 기념 베트남 주석(또 럼)에게 축전 발송(9.2. 노동·중통)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 시 연설(9.3. 노동·중통)
9.4.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9.5. 노동·중통)
9.9.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참가 및 연설(9.10. 노동·중통)
9.9.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촬영(9.10. 노동·중통)
9.12.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정권수립 78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9.13. 노동·중통)
9.14. 푸틴 대통령의 정권 수립(9.9.) 78주년 축전에 대해 답전(9.15. 노동·중통)
9.14. 고 윤동현(국방과학지도 위원회 참사) 영전에 화환 전달(9.15. 노동·중통)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지도 및 연설(9.19. 노동·중통)
9.16.~18.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에서 연설(9.22. 노동·중통)
9.20. 미사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참관(9.22. 노동·중통)
9.22.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9.24. 노동·중통)

고병현(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길봉찬(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김광혁(공군사령관)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김기룡(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김덕훈(내각 제1부총리)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김두원(보건상)

9.15. 서부지구영예군인보양소 준공식 참가(9.16. 노동·중통)

김두일(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16. 새로 개건된 청진농업대학 준공식 참가(9.17. 노동)
9.28. 청진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9.29. 노동)

김룡일(양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김성기(국방상)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김성남(당 국제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15. 평양시인민소비품 전시회 참가(9.16. 노동·중통)
9.19. 석탄전선 지원 돌격대활동 궐기모임 참가(9.20. 노동)

김승두(당 부장 겸 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4. 총련교육일군대표단과 담화(9.5. 노동)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10. 지적소유권부문전람회-2026 개막식 참가(9.11. 노동·중통)

9.28. 김일성종합대학지원전시회 참가(9.29. 노동)

9.29.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식 참가(9.30. 노동)

김여정(당 총무부장)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시 동행(9.10. 노동·중통)

9.17.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언급 관련 담화(9.17. 중통)

9.17. 미국《퍼시픽 뱅가드》연합훈련 비난 담화(9.18. 중통)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9.19. IAEA 총회 북한 비핵화 결의 채택 관련 담화(9.19. 중통)

9.30.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관련 담화(《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9.30. 중통)

김일국(체육상)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15.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 위해 평양 출발(9.16. 노동·중통)

9.29. 일본 조선대학교 방문(9.29. 조선신보)

김재룡(당 정치국 위원)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김정관(당 부장 겸 비서)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 **9.13.~17.** 건설부문일군 집중강습-2026 진행 시 개강사(9.18. 노동·중통)

김정식(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제1부부장)

-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 **9.20.**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참관 시 동행(9.22. 노동·중통)

김철원(최고검찰소 소장)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김학철(제8군단장)

-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김형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리경일(내각 부총리)

-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 **9.23.** 제2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사 진행(9.24. 노동)
- **9.29.** 제2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폐막식 참가(9.30. 노동)

리경철(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리광남(기계공업상)

9.23. 제2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식 참가(9.24. 노동)

9.29. 제20차 전국기계설계축전 폐막식 참가(9.30. 노동)

리룡남(중국 주재 대사)

9.8. 정권수립 78주년 즈음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경축연회 참가(9.12. 노동·중통)

리병철(당 군수정책 담당 총고문)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리봉춘(제11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리승국(베트남 주재 특명전권대사)

9.25. 베트남에서 북한 군인들의 군상주제현판제막식 참가(9.28. 노동·중통)

리영길(군 총참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리영식(내각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리영철(교육상)

8.30.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램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폐막사(8.31. 노동)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28. 김일성종합대학지원전시회 참가(9.29. 노동)

9.29. 제2차 조로학장연단 참가한 러시아 대표단과 담화(9.30. 노동·중통)

리원종(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리일환(당 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리정국(제5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리정남(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리창대(국가정보국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리철만(내각 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9.1. 비알곡먹이에 의한 축산물생산기술전습회 참가(9.2. 노동)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리호림(당 경공업부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박광섭(해군사령관)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박광웅(당 부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박명호(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16. 새로 개건된 청진농업대학 준공식 참가(9.17. 노동)

9.28. 청진불고기전문식당 준공사(9.29. 노동)

박성철(개성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박성철(자강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11. 자강도 수력발전소건설착공식 참가(9.12. 노동)

박영일(군 총정치국 부국장)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박정근(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9.3. 성, 중앙기관일군농구경기대회-2026 결승경기 진행 시 참가(9.4.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박정천(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촬영 시 동행(9.10. 노동·중통)

9.16.~18.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 시 동행(9.19.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박창호(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박태성(내각 총리)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9.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연회 시 축하연설(9.10. 노동·중통)

미상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9.15. 노동·중통)

미상 여러부문사업 현지요해(9.23. 노동·중통)

박현철(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24. 함흥불고기전문식당 준공사(9.25. 노동)

박훈(내각 부총리)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방두섭(사회안전상)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백성국(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백은철(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1.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사(9.2. 노동)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9. 국제청년축전에 참가 위해 조선청년대표단 단장으로 방러(9.10. 노동·중통)

9.23. 조선청년대표단 국제청년축전에 참가하고 귀국(9.24. 노동·중통)

서창렬(남포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신영일(당 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신영철(라선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신창길(자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11. 자강도 수력발전소건설착공식 참가(9.12. 노동)

안금철(당 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안영환(제1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안명준(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15. 서부지구 영예군인보양소 준공식 참가(9.17. 노동·중통)

양명철(평안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장창하(미사일총국장)

9.20.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참관 시 동행(9.22.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전경철(당 부부장)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전승국(내각 부총리)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10. 지적소유권부문전람회-2026 개막사(9.11. 노동·중통)

9.16. 지식인들게게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참가(9.17. 노동)

9.17. 지적소유권 부문 전람회-2026 페막사(9.18. 노동)

9.28. 김일성종합대학지원전시회 참가(9.29. 노동)

9.29. 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사(9.30. 노동)

전향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전현철(내각 부총리)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정경택(당 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정명남(제4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조용원(당 조직지도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촬영 시 동행(9.10.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9.24. 전러시아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에게 축전 발송(9.26. 노동·중통)

조춘룡(당 부장 겸 비서)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 시 참가(9.10. 노동·중통)

9.18. 함선공업부문 조선소근로자들의 체육경기 관람(9.19.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주성남(제2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주창일(당 부장 겸 비서)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3.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폐막식 참가(9.4. 노동·중통)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대성산혁명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평양시 중앙급 대학 수영경기 관람(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9.22.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 축구경기 관람 시 동행(9.24. 노동·중통)

9.24. 농업출판사창립 80돐 기념보고회 참가 시 당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9.25. 노동)

주철규(당 부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지영복(제9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진금송(노동상)

9.15. 서부지구 영예군인보양소 준공식 참가 시 준공사(9.16. 노동·중통)

최선희(외무상)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시 동행(9.10. 노동·중통)

9.24. 유엔총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담화(9.24. 중통)

최영만(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8. 신의주불고기전문식당 준공식 참가(9.10. 노동·중통)

최창학(당 중앙위 제1부부장)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최춘길(당 부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최희태(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9.15.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시회 참가(9.16. 노동·중통)

한광호(당 부부장)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한종혁(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9.18. 당 제3차 선전부문 일군강습회 개강식 참가(9.19. 노동·중통)

9.21.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 참가(9.22. 노동·중통)

현송월(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9.2.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식 참가(9.3. 노동·중통)

9.4.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시 동행(9.5. 노동·중통)

9.8. 정권수립 78주년 계기 신미리애국렬사릉 화환 진정식 참가(9.9. 노동·중통)

9.9.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연설시 참가(9.10. 노동·중통)

현은철(문화상)

9.21. 러시아로 가는 문화성 대표단 평양 출발(9.22. 노동·중통)

9.28. 러시아에 갔던 문화성대표단 귀국(9.29. 노동·중통)

홍철웅(제7군단장)

9.8. 정권수립 78주년 기념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 참가(9.9. 노동·중통)

황만복(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9.29. 원산불고기전문식당 준공사(9.30. 노동)

월간 보도일지

9.1.(화)

대내
- o 애국을 통한 내부결속 및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 강조(노동)
-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노동·중통)

대남

대외

9.2.(수)

대내
- o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교육토대 강화 성과 선전(노동)
- o 북한 창건일(9.9.) 관련 김일성의 '국장 도안' 지도 일화 소개(노동)

대남

대외
- o 김정은 위원장, 베트남 건국 81주년 관련 또럼 주석에 축전(노동·중통)
- o 유엔헌장에 명기된 일본의 적국 지위 상기(노동)
- o 러시아 국제문제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문제 관련 언급(노동)

9.3.(목)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9.2.) 참석·연설(노동·중통)
- o 여러 부문·단위 8월 인민경제계획 완수 선전(노동)

대남

대외
- o 이집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창건일(9.9.) 관련 축전(노동·중통)
- o 조선기자동맹대표단, 러시아에서 귀국(노동·중통)

9.4.(금)

대내
-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토론·폐막 및 강습 진행(노동·중통)
- o 당사업의 중심고리로 사상사업 강조(노동)
- o 군 건설자들의 지방발전정책 건설사업 진행성과 선전(노동)

대남

대외
- o 주요 국제회의 개최 동향 단신 보도(노동)

9.5.(토)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노동·중통)
- o 여러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전시회 진행(노동·중통)

대남

대외

9.6.(일)

대내
- o 정치국 확대회의정신 및 과업 관철 투쟁 선전(노동)
- o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의지로 증산투쟁 강조(노동)
- o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평양시 안의 여러 교육단위들 참관(노동·중통)

대남

대외

9.7.(월)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강건호 취역식 참석 및 연설(노동·중통)
- o 북한 정권 수립일(9.9.) 관련 김부자 업적 선전(중통)

대남

대외
- o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에지' 등 계기 김성기 국방상 담화(중통)

9.8.(화)

대내
- o 북한 정권 수립 78년 관련 △근로단체들에서 상봉모임 진행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실화무대 진행 △학생소년들의 웅변모임 진행 등(노동·중통)
- o 지방 발전 선전(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두만강 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노동·중통)

9.9.(수)

대내
- o 북한 정권 수립 78년 관련 △당과 정부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애국열사릉에 꽃 진정 △시가행진 및 경축 야회 진행 등(노동·중통)
- o 각지에서 새로운 건재기지건설 및 생산능력확장공사 추진(중통)

대남

대외
- o 국제문제평론가, 일본 '오리엔트 쉴드' 관련 비난 논평(9.9. 노동, 9.8. 중통)
- o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 △벨라루스 알렉산더 대통령 △베트남 또 럼 주석 등 북한 정권 수립일 축전 발송(노동·중통)

9.10.(목)

대내
- o 김정은 위원장,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참석(노동·중통)
- o 김정은 위원장, 경축 행사 참석 혁신자·공로자 축하 및 기념촬영(노동·중통)
- o 북한 정권 수립 78년 관련 △경축공연 △노력자, 공로자들을 위한 연회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 진행 등 각종 기념행사(노동·중통)

대남

대외
- o 북한 청년대표단, 국제청년축전 참가를 위해 러시아로 출발(노동·중통)
-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싱가포르 등 축전 발송(노동)

9.11.(금)

대내 o 올해 과업 관철을 위한 사상사업 강조(노동)
o 《지적소유권부문 전람회-2026》 개막(노동)

대남

대외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아제르바이잔 △이란 △팔레스타인 등 축전 발송(노동·중통)

9.12.(토)

대내 o 자강도에서 수력발전소건설 착공식 진행(노동·중통)
o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10차 대회 소집 공고(노동·중통)
o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노동)

대남

대외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UN사무총장 △인도 △쿠바 등 축전 발송(노동·중통)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경축 연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경축 행사 진행(노동·중통)

9.13.(일)

대내 o 황해남도 농촌들에서 벼가을(가을걷이) 시작(중통)
o 평양시에서 농촌살림집건설 마감단계(중통)

대남

대외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중국 시진핑 주석 축전에 답전(노동·중통)
o 재일총련 <2026 아시안게임> 정식국호 사용 및 공정한 보도 요청(조선신보)
o 북한 정권 수립일 관련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노동·중통)

9.14.(월)

대내 o 국토환경보호사업 활발히 전개(노동)
o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조선' 국호 사용 주장(조선신보)

9.15.(화)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故 윤동현 령전에 화한 전달(노동·중통)
o 박태성 내각 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대남

대외 o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 축전에 답전(노동·중통)
o 중국 청년간부 대표단 방북 및 북한 외무성 부상 예방(노동·중통)
o 국제통화기금 비난(노동)

9.16.(수)

대내 o 당 제9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당원의 역할 독려(노동)
o 서부지구 영예군인 보양소 준공식 진행(노동)
o 전국인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o 국방성 대표단 제13차 베이징향산연단 참가 평양 출발(노동·중통)
o 한미 WMD 대응위원회 관련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중통)
o 오커스출범 5주년 및 미해군 당국자 발언 등 계기 논평(노동·중통)

9.17.(목)

대내 o 당의 영도와 자립·창조의 힘 강조(노동)
o 전국 인공지능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노동)
o 청진농업대학 준공식 진행(노동)

대남

대외 o 국제원자력기구회 총회 제70차 회의 관련 김여정 당중앙위 부장 담화(중통)

9.18.(금)

대내 o《건설부문일군집중강습-2026》진행(노동·중통)
o 자강도당위원회, 지역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조직정치사업 심화(노동)

대남

대외 o 김여정 당 부장, '퍼시픽뱅가드 2026' 등 미국 주도 군사연습 비난 담화(중통)
o 국방성대표단 제13차 베이징향산연단 참가(노동·중통)

9.19.(토)

대내 o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중요군수공업기업소 생산실태 점검(노동·중통)

대남

대외 o IAEA 총회 북핵 결의 관련 김여정 당 부장/외무성대변인 담화(중통)

9.20.(일)

대내 o 평양학생교복공장 창립 80년 기념(노동·중통)
o 함경북도에서 건재전시회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러시아로 출발(노동·중통)
o 중국, 러시아, 몽골《국경경비협조-2026》합동훈련 진행(노동)

9.21.(월)

대내 o 농업 근로자 가을걷이 총력전 독려(노동·중통)
o 남포시의 여성들《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로 탄원(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보고서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9.22.(화)

대내
o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 및 김정은 위원장 연설(노동·중통)
o 김정은 위원장, 신형 중요 전투무기체계 시험 참관(노동·중통)

대남

대외
o 북한 여자축구팀, 제20차 아시안게임 준준결승 진출(노동·중통)
o 문화성 대표단, 상트 국제문화포럼 참석 위해 러시아로 출발(노동·중통)

9.23.(수)

대내
o 박태성 내각총리, 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o 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참가자들 정치문화사업 진행(노동)
o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2026 개막(노동)

대남

대외
o 북한 대표단, 제81차 UN총회 참석 위해 평양 출발(노동·중통)
o 북한 국방성 대표단, 베트남 방문 위해 평양 출발(노동·중통)

9.24.(목)

대내
o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총국 대 제2경제위원회 축구경기 관람(노동·중통)
o 국방과학연구부문, 갱신형 240mm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 진행(중통)

대남

대외
o UN총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관련 최선희 외무상 담화(중통)
o 제12차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우호국 장관회의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중통)

9.25.(금)

대내
o 농업출판사 창립 80년 기념보고회 진행(노동·중통)
o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년 관련 전국 대학생 발명 및 착상전시회 진행(노동·중통)
o 평양시 청년탄원자들의 연단 진행(노동·중통)

대남 o 강철수 대적연구원 실장, 한미안보협력 강화 비난(중통)

대외 o 시진핑 주석, 산사태 피해 관련 김정은 위원장 위로 전문에 답전(노동)

9.26.(토)

대내
o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매일 수천정보의 벼가을 진행(노동)
o 민속명절 추석 맞이(중통)

대남

대외 o 조용원 당 비서, 제9기 국가회의선거 승리 관련 통일러시아당에 축전(노동·중통)

	o 북한 여자축구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준결승경기에 진출(노동·중통)
9.27.(일)	
대내	o 양강도 안의 농근맹조직들에서 대중운동 활발(중통) o 서해안의 수산사업소에서 가을철 물고기잡이 시작(중통)
대남	
대외	o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 평양 도착(노동·중통)
9.28.(월)	
대내	o 각지의 농촌들에서 가을걷이 진척(노동) o 황해남도에서 역사유산보호사업 활발(중통)
대남	
대외	
9.29.(화)	
대내	o 박태성 내각총리, 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중통) o 국가부흥의 절대적 지침으로 당정책 강조(노동) o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관련 김일성종합대학지원전시회 진행(노동)
대남	
대외	o 외무성, 미국 핵무력증강 및 핵전파 비망록 발표(노동·중통) o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년 관련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 대표단 도착(노동·중통)
9.30.(수)	
대내	o《선진과학기술 및 제품전시회-2026》 개막(노동) o 개성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 수백 t의 유기질복합비료 생산(노동)
대남	o 김여정 부장,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관련 비난 담화(중통)
대외	o 북한 대표단 단장,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노동·중통) o 제2차 북한-러시아학장연단 진행(노동·중통)

이달의 약사

- **09.01.**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 시행(1975년)
- **09.01.** '블럭 불가담의 날'(비동맹의 날)(1981년 2월, 인도 비동맹외상회의 결정)
- **09.01.** '국제평화의 날'(1982년 6월 쿠바 제10차 세계 직맹대회 결정)
- **09.02.** 북한, 서해 NLL 무효화 선언(1999년)
- **09.0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2000년)
- **09.03.** 제6차 핵실험 실시(2017년)
- **09.0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90년 9월 4일 ~ 7일, 서울)
- **09.04.** 「북한인권법」 발효(2016년)
- **09.05.**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방침(테제)」 발표(1977년, 김일성 발표)
- **09.05.** '교육절'(1977년 9월 19일 제정)
- **09.05.** '도시경영절'(1982년 8월 2일 제정)
- **09.05.** 북한 「헌법」 개정(1998년)
- **09.06.**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南) 주민 6명 사망(2009년)
- **09.08.** 「합영법」 채택(1984년)
- **09.08.** 김정은,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제841호) 진수식 참석(2023년)
- **09.09.** 북한 정권 수립일('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1948년)
- **09.09.** '주체' 연호 시행일(1997년 7월 8일)
  ※ 김일성 출생연도(1912년)를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
- **09.09.** 제5차 핵실험 실시(2016년)
- **09.11.** 제4차 노동당 대회 개최(1961년 9월 11일 ~ 18일)
- **0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1989년)
- **09.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13년)
- **09.11.** 북한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2017년)
- **09.12.** 「붉은 청년근위대」 창건일(1970년)
- **09.12.** 「신의주 특별 행정구」지정일(2002년)
- **09.14.**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 개최(2018년)
- **09.14.**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2018년)
- **09.15.** '상업절'(1971년 11월 6일 제정)
- **09.15.**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1992년 9월 15일 ~ 18일, 평양)
- **09.15.**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2000년)
- **09.15.** 북한, '화성-12형' 발사(2017년)

- **09.16.** 북한, IAEA 가입(1974년)
- **09.17.** 남북 UN 동시 가입(1991년)
- **09.17.**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채택(1992년)
- **09.17.** 북·일 정상회담, '평양선언' 채택(2002년)
- **09.18.** 북한 잠수함 강릉 침투(1996년)
- **0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2002년)
- **09.18.**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2018년, 평양)
- **09.19.** 제4차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발표(2005년)
- **09.19.**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및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채택(2018년)
- **09.20.**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1985년 9월 20일~23일)
- **09.20.** 피복공업절(1998년 2월 4일 제정)
- **09.20.**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동반 방문(2018년)
- **09.21.** 북한, 신의주 특구지정 발표(2002년)
- **09.22.** 김정숙(김정일 母) 사망일(1917년 12월 24일~1949년 9월 22일)
- **09.22.** 남북 직통전화 개통(1971년)
- **09.24.** 방직 공업절(1973년 10월 15일 제정)
- **09.24.** 전기절(1971년 9월 15일 제정)
- **09.24.**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발족일(1997년)
- **09.24.** 남북 군 당국 간 직통전화 개통(2002년)
- **09.25.**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공포일(2012년)
- **09.25.**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2000년 9월 25일 ~ 26일, 제주)
- **09.2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9년)
- **09.26.**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3차 회담 개최
  (1995년 9월 26일 ~ 10월 1일, 베이징)
- **09.27.**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2010년)
- **09.27.** 북한, 핵사용 헌법 명시(2023년)
- **09.27.**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개편(2023년)
- **09.28.** 「조·일 국교 정상화 추진 공동선언」 발표일(1990년)
- **09.28.**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2010년)
- **09.29.** 남북 통일축구대회 개최 합의(1990년)
- **09.29.**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응원단 참가(2002년)
- **09.3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2013년)